Entertainment p/20

올림픽 끝나면 '소시' 컴백

metro

메트로 2014년 2월 12일 수요일 제2012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2

여자컬링 日에 5점차 완승

이상화 첫 金 '올림픽 2연패'

소치 '이상화의 날' 첫 태극기 휘날리다 이상화가 11일(현지시간) 러시아 소치 해안클러스터의 아들레르 아레나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차지,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뒤 태극기를 들고 환호하는 관중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빙속 여자 500m서 '올림픽 新' 압도적 1위… 한국 3회 연속 톱10 '시동'

'빙속 여제' 이상화(25·서울시청)가 마침내 한국의 메달 갈증을 씻어내며 귀중한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상화는 11일(현지시간) 러시아 소치의 아들레르 아레나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경기에서 1·2차 레이스 합계 74초70의 올림픽 신기록으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했다.

2010년 캐나다 밴쿠버 대회에 이어 또 다시 금메달을 딴 이상화는 아시아 선수로는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최초의 2회 연속 올림픽 제패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금메달 0순위' 이상화의 이변 없는 활약으로 한국은 올림픽 3회 연속 톱 10의 목표에 시동을 걸게 됐다.

이상화는 1차 레이스에서 37초42의 기록으로 총 36명 중 가장 좋은 기록으로 레이스를 마쳐 일찌감치 금메달을 예약했다. 자신이 보유한 세계 기록 36초36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뚜렷한 경쟁자 없이 압도적인 성적이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혔던 선수들이 일제히 부진하며 이상화의 올림픽 2연패의 길을 열어줬다. 이자 500m 1·2차 합계 세계 기록(74초42)을 보유한 예니 볼프(독일)는 이상화보다 0.51초나 뒤진 37초93으로 8위에 처졌고, 왕베이싱(중국·37초82)도 6위에 머물렀다.

마지막 17조로 2차 레이스에 나선 이상화는 첫 100m 구간을 1차 레이스 때보다도 빠른 16초17에 지나면서 더욱 우승을 굳혀갔다. 이후에도 흐트러짐 없이 무섭게 질주를 이어가며 금빛 레이스를 완성했다.

이상화의 최종 기록은 곧 관중의 일방적 응원을 등에 업은 2위 올가 팟쿨리나(러시아·75초06)보다 0.36초나 앞섰다. 동메달은 마르곳 부르(네덜란드·75초48)가 차지했다.

◆시대 대표하는 스케이터 반열 등극

이번 올림픽에서 또 한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 스케이터의 명성을 확인한 이상화는 시대를 대표하는 스케이터의 반열에 당당히 올라섰다.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선수가 나오기는 1998년 나가노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를 제패한 카트리오나 르메이돈(캐나다) 이후 12년 만이다. 르메이돈은 1997년 37초90의 세계신기록을 작성한 것을 비롯해 모두 일곱 차례나 연달아 새로운 기록을 써냈다.

2001년 르메이돈이 37초22의 마지막 세계기록을 세운 지 8년이 지난 2009년에야 겨우 예니 볼프(독일·37초00)에 의해 새 기록이 나왔고, 이후 중국의 위징이 2012년 처음으로 36초대로 37초의 벽을 깼다.

이처럼 높기만 했던 세계 기록의 벽은 최근 1년 사이 이상화에 의해 네 차례나 무너져 내렸고, 이상화는 '빙속의 전설'로 단단히 이름을 새기게 됐다. <관련기사 22·23면>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대형마트 개점 2시간 늦추고 의무휴업일 월 1일에서 2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시간을 확대하는 서울 자치구들의 조례 개정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3일 양천구가 조례 개정을 마친 데 이어 도봉구도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제한시간을 기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봉구는 의무휴업일도 '매월 하루 이상 이틀 이내'에서 '매월 이틀'로 강화했다.

그동안 농수산물의 연간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1%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는 이런 영업제한을 적용받지 않았지만 이번에 그 기준을 농수산물 매출 비중 55%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따라서 대형마트와 SSM은 사실상 영업제한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천·도봉구 이외에 종로·용산·성동·광진·동대문·성북·강북·마포·구로·금천·영등포·강남구도 이달 중 새 조례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중랑·도봉·노원·은평·서대문·동작·관악·서초·송파구·강동·중구는 입법예고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 조례의 내용은 '영업제한시간 2시간 연장'과 '월 이틀 휴업'이다.

/연선옥기자 mkim@

귀 닫고 소통하겠다는 복지부

기자 수첩
황재용
<생활복지부 기자>

보건복지부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부의 사업 계획들이 쏟아졌다.

그리고 복지부는 현재 의료계와 의료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와 진행하는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벌써 세 차례 논의가 이뤄졌고 앞으로도 소통은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약사들과 충분히 대화해 동네 약국을 죽이지 않는 적합한 형태의 법인약국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약사들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복지부의 의지인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소통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원격의료로 빚어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시작된 의발협은 성과 없이 논의만 계속되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복지부가 보여준 행보가 '쇠귀에 경 읽기'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 장관은 취임 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모두가 반대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이 역시 결론 없이 제도가 이미 재시행됐다. 지난달 소통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가 구성됐지만 복지부의 요지부동 자세로 소통 아닌 소동만 이어지다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을 섬긴다는 복지부, 국민 건강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복지부. 자기 말만 하지 말고 남의 말도 들어야 올바른 사업 계획이 세워진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방한 첫날 위안부 할머니 찾아간 무라야마 전 총리 정의당 초청으로 국회를 방문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작품전에 참석해 김순덕 할머니의 작품 '꽃 핌' 선물받고 있다. /연합뉴스

선택진료 폐지 대신 축소

특진의사 수 3분의 1로 줄이고 일반병동 확대…환자부담 36% 경감

보건복지부가 3대 비급여 대책 실행 등 2014년도 업무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11일 보고했다.

복지부는 우선 올해 안으로 선택진료비 가산율을 현재의 65% 수준까지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선택 의사 진료비는 일반 의사보다 20~100%를 더 받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15~50%만 가산하게 된다.

또 2016년까지 선택 의사 규모 자체를 줄이고 2017년에 선택진료제를 '전문진료 의사 가산 제도'로 전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선택진료제가 축소되고 이 대신 신설되는 우수 병원에 대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가산, 의사 개인에 대한 전문 진료 가산 등의 일정 부분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해 결과적으로 환자의 부담은 최대 36%까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기존 6인실인 일반병상 기준을 4~5인실로 조정해 올해 안으로 일반병상 비중을 82%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 50%인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비율도 내년까지 70%로 조정된다.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대형병원이나 수도권 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기본 입원료 본인 부담률도 기존 20%에서 30%로 올라간다.

간병비 대책으로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이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보상을 받고 간병을 책임지는 '포괄간호서비스'(가칭)가 제시됐다. 복지부는 올해 중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한 후 2017년까지 국내 병원의 70%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아울러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 제도가 전면 시행돼 건강 상태 등급 판정 결과만으로는 수혜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가벼운 치매 환자 5만여 명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치매환자 가족이 2~3일간 환자를 단기보호시설에 맡기고 쉴 수 있는 '가족 휴가제'도 도입된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자칭 친박 정몽준 이혜훈 출정식 참석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서울 시청 출마선언식에서 인사하는 동안 정몽준, 김무성 의원 등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 판문점서 남북 고위급 회담

남북이 12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차관급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전격 합의했다.

통일부는 11일 "북측이 지난 8일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고위급 접촉을 전격적으로 제안해왔다"며 "남북은 이후 수차례 물밑 협의를 통해 모든 최종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고위급 당국 회담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 측에서는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북측에서는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김서온기자

뉴스 & 뉴스

홍문종 "이주 노동자 착취 있었다면 담당자 문책"

●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11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포천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에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 착취가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앞에 송구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그는 "혹여 불법이 드러나면 담당자를 엄중히 문책할 것이며 피해를 받은 분이 있다면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국조' 현오석 부총리 증인 채택

● 수요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 국정조사에 착수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열리는 청문회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현 부총리를 포함한 기관 증인 13명과 일반 증인 16명, 참고인 5명의 명단을 의결했다.

학습지교사·캐디도 2016년부터 실업급여

이르면 2016년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과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2014년 업무계획에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돼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업 규모에 따른 노후소득 차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도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가 도입된다.

/김현희기자 mlk.m@

'정의사회·통합·한반도 평화' 安신당 3대원칙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11일 "정의로운 사회, 사회적 통합, 한반도 평화를 '새 정치'의 3대 가치"라고 밝혔다.

김효석 새정추 공동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새로운 정치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치 3대 가치와 방향 등을 발표했다.

새 정치의 첫 번째 가치인 '정의로운 사회'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지역과 성별 등의 차별이 없는 사회 ▲민주적 공공성이 회복된 사회로 정의됐다.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지역·이념·세대·계층 등 4중의 갈등 구조를 해결하고 민주적 통합을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포용의 리더십'과 '협의형 정치'를 수단으로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 로드맵으로는 여야 합의가 가능한 대북 정책을 마련하고 분배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제안했다.

이어 '통합의 정치', '희망을 만들어가는 정치', '정치적 담합을 타파하는 '정치 구조 개혁'' 등을 새 정치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조현정기자 jhj@

국민의례하는 안철수 윤여준 원 새정치추진위원회 의장과 안철수 의원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적·인종은 달라도 금메달 포즈는 하나

/AP 연합뉴스

용인 유치원비 전국 최고

정부보조금 제외하고도 부식비 등 특별비 월 48만원 … 강남구는 11만원

만 5세 아동까지 보육·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특별비로 연례 매월 수십만원의 학부모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한국 YMCA 전국연맹의 '전국 유치원 교육비 및 서비스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을 비롯한 전국 17개 지역 유치원 432곳을 대상으로 가격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 5세 정부 지원금 22만원을 제외하고 학부모가 추가 부담하는 월평균 교육비는 10만4900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선 양천구학부가 부담이 평균 27만1250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14만7500원)와 강남구(11만750원)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용인의 경우 정부 보조금을 제외하고 부식비 지원운행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 월평균 47만9540원에 달해 유치원비 부담이 가장 컸고, 영어 교육비 만지도 22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최대였다.

개별 유치원으로 놓고 보면 서울 성동구 한 유치원의 교육비가 37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의 또 다른 유치원이 3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용인과 공주의 일부 유치원은 보조금을 제외한 수업비가 0원이었다.

보고서는 "정부 보조금 지급으로 학부모가 부담할 유치원 교육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특별교육 등 명목으로 오히려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으며 지역마다 큰 편차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양육비, 정부가 대신 받아준다

지급이행 전담기관 설치

이혼 후 자녀 양육을 맡은 한부모가정 구성원이 이혼 당시 전 배우자와 합의한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 부모 비율이 35%에 이르며, 지급받더라도 비정기적으로 지급(23.4%)되거나 중단(28.5%)되는 등 양육비 확보가 취약한 이들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부는 양육비 지급 이행업무 전담기관 설치를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외국 우수 사례를 위한 정책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담기관이 설치되면 이전까지 한 부모 가정 부모들이 양육비를 지급받으려고 개별적으로 소송할 필요 없이 해당 기관이 일괄 처리한다.

/윤다혜기자

'3000억 사기대출' 사장 4명 잠적

KT ENS 협력업체 압수수색

경찰이 KT 자회사인 KT ENS 협력업체의 최소 3000억원대 사기대출 사건과 관련, 11일 협력업체들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과 안현 점전동 등지에 있는 6개 협력업체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들 업체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관련 장부 등 서류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잠적한 협력업체 사장 4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KT ENS 부장 김모(51·구속)씨는 2008년 5월부터 최근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KT ENS에 납품하는 협력업체 6개사와 공모해 통신장비를 실제로 납품받지 않았으면서도 납품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2300억원을 대출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를 본 은행은 총 16곳에 달하며 경찰은 지금까지 7곳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윤다혜기자

요즘 졸업식 화환 '꽃보다 사탕' 11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숭인초등학교에서 졸업식이 열렸다. 귀여운 꼬마 친구가 사탕과 초콜릿으로 만든 꽃다발을 고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 /뉴시스

고속도로 휴게소 진입로 4월까지 점멸식 신호등

고속도로 휴게소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휴게소 진입로에 점멸식 신호등이 생긴다.

11일 한국도로공사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감속 차로와 입구 주차장에 감속 유도 표지판을 세운 데 이어 오는 4월까지 일부 휴게소 진입로에 점멸식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교통사고 21건이 발생,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위치별로는 진입로 14건, 주차장이 7건이었다.

/조현정기자 NB

"대보름엔 오곡밥" 1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오곡밥을 지을 곡물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정월대보름 달마중 행사

서울시 송파구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올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정월 대보름인 14일 서울놀이마당에서 '2014 정월대보름 달마중'을 개최한다.

사단법인 송파민속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20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이며 약 3시간에 걸쳐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만수무강건강법 비타민 강좌

서울시 강서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구민회관에서 김일성 주치의를 지낸 김소연 박사를 초청, '만수무강 건강법'을 주제로 제84회 지식비타민강좌를 개최한다.

김 박사는 이번 강연에서 북한에서 각종 연구를 통해 얻은 효능과 지료, 한국에서 공부한 한의학 등 무병장수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영등포복지계획 조사원 모집

서울시 영등포구가 17일까지 제3기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원 30명을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된 조사원은 3월 5일부터 13일까지 영등포구 관내 500가구를 직접 방문, 분야별(빈곤·보육·고용·주거 등)과 대상자별(노인·여성·장애인·영유아·청소년 등)로 34개 관련 면담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독일의 철학자 칸트 사망

1804년 2월 12일, 비판철학으로 서양의 근대 철학을 종합한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80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그는 고향 쾨니히스베르크에서 150km 이상 벗어난 적 없이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다. 46세까지 정식 교수가 아닌 강사 생활을 한 칸트는 합리론과 경험론을 비판적으로 통합한 순수이성비판 등 저술해 보편적 도덕의 도덕적 의무감을 추구하는 인간의 능동적 자발적 능력을 강조했다.

대기업 SI의 '몹쓸 갑질'

계약서 안쓰고 대금 깎고… 신세계·롯데·SK 등 7곳 공정위 '철퇴'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부당 감액하는 등 '갑'의 횡포를 부린 대기업 시스템 통합(SI)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 SI 업체의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이 드러난 7개사에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총 과징금 6억9500만원이 부과된 업체는 신세계I&C, 롯데정보통신, KTSD, 현대오토에버, SK C&C 등이다. 한화S&C, 아시아나IDT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조사 대상 8개 사업자 중 포스코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별도로 조치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서면 미발급 및 지연 발급이 지적됐다. 이 업체들은 계약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수급 사업자에게 구두로 작업 지시를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도 법 위반 사항이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며 낙찰 후 추가 협상을 통해 수급 사업자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이다.

대금 지연 지급도 지적됐다.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며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보다 지연해 지급했고 이에 따른 지연 이자를 미지급했다.

특히 부당 감액으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프로젝트의 과업 내용 및 물량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것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그간 SI 업종의 하도급 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서면 미발급, 부당 단가인하, 대금 지연 지급 등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SI 업종의 하도급 거래에서 관련 사업자의 준법 의식이 높아지고 수급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황주영기자 … @metroseoul.co.kr

성매매 업소 광고 앱으로 '큰돈'

5개월간 5000만원 챙겨

성매매 업소 광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배포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1일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터넷 광고업자 성모(32)씨와 앱 개발자 김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국 228개 성매매·유사성매매 업소의 위치·연락처·성매매 여성 정보가 담긴 스마트폰 앱을 개발·배포해 각 업소로부터 광고비 5만~10만원씩 총 5000여만원을 5개월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PC 인터넷 유흥업소 광고는 많지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광고는 찾기 어렵다는 사실에 주목해 김씨에게 1000만원을 주고 앱 제작을 의뢰했다.

이들은 직접 인터넷을 검색해 수집한 성매매 업소 정보를 앱에 담았다. 이 앱에는 업소의 기본 정보와 함께 성매매 가격, 현재 위치와 업소까지의 거리 등 구체적인 정보가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앱은 5개월간 총 3만8125회 다운로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준기자

박기성 노동경제학회장 취임

성신여자대학교 박기성 경제학과 교수가 11일 한국노동경제학회 제2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박 신임 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인적자본 및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 신임 회장은 지난해 몽 펠르랭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경희사이버대 글쓰기 시상식

경희사이버대학교는 8일 경희대 서울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에서 '글쓰기의 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6명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임미경(한국어문화학과 1학년)씨는 '현재 안에 과거와 미래가 존재한다'라는 주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했다.

지붕 발굴작업? 2년만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강원 강릉시 강동면의 한 양계장에서 11일 강원도청 공무원들이 건물 붕괴를 막기 위해 지붕 위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

폭설에 지붕 무너져 2명 사망

동해안 버스 등 운행 차질

엿새간 폭설이 이어지며 11일 동해안 지역의 도시 기능이 마비됐다. 울산에서는 폭설 무게를 견디지 못한 공장 지붕이 내려앉는 사고가 잇따라 근로자 2명이 깔려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다행히 이날 오후부터 강원 영동지역은 눈발이 약해져 강원지역 대설주의보는 낮 12시 30분을 기해 모두 해제됐다.

동해안 각 시·군은 2만여 명의 인력과 2200여 대의 장비를 투입해 폭설로 고립된 마을 길 확보와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제설 작업에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엿새간 이어진 폭설로 2m 가까이 눈이 쌓이며 산간마을 시내·농어촌 버스와 화물열차의 차질 운행은 계속됐다. 동해안 지역을 운행하는 화물열차와 바다 열차의 운행은 이틀째 중단됐다.

이날 오전 12시41분께 울산시 북구 효문동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공장 지붕이 폭설로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10일 오후 10시19분께는 울산시 북구 농소동 한 자동차 협력업체 공장 지붕이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무너져 실습 고교생 1명이 깔려 숨졌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폭설로 부품 수급 등에 차질을 빚자 지난 10일 밤 2시간가량 단축 조업을 했다. 부산 광안대교에서는 지난 10일 밤 눈길에 미끄러진 승용차 운전자가 사고 수습 과정에서 또 다른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한진기자 …

어린 자녀 학대하는 부모 친권 제한한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부당하게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정지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1일 올해 32개 법률의 제·개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키로 하고 관련 계획을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아동학대 범죄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 절차를 대폭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제정과 발맞춰 관련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동을 학대하거나 부당한 친권을 행사한 부모는 형사처벌과 함께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상 친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된다.

이와 함께 강제적인 유사 성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적용 대상 확대도 추진된다. /유다혜기자 …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프랑수아 올랑드(왼쪽) 프랑스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의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을 둘러본 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오바마도 올랑드처럼 결별?

프 일간지 "비욘세와 염문설 터질 것" 보도 소동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팝스타 비욘세(사진)의 염문설이 10일(현지시간) 프랑스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사진작가 파스칼 로스탱은 현지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비욘세의 염문설이 11일자 워싱턴포스트(WP)에 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스탱은 "오바마 대통령이 부인 미셸 여사와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두 사람을 최근 결별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전 동거녀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르의 사례와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존 F 케네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염문을 뿌렸던 메릴린 먼로와 모니카 르윈스키를 언급하며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한 남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가 로스탱의 주장이 헛소문이라고 반박하면서 이번 염문설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비욘세는 미셸 오바마 여사의 50회 생일파티에 초대되는 등 오바마 대통령 내외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미기자

미 뉴욕주도 '동해 병기'

7월부터 모든 공립학교 교과서에 표기…상·하원 입법화 본격 추진

미국 뉴욕주 상·하원이 '동해 병기' 입법화 작업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뉴욕주 의원들과 한인 교포들은 뉴욕주의 모든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 표기를 함께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발간되는 뉴욕주의 모든 공립학교 교과서는 동해를 일본해와 함께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은 "역사는 대부분 승자가 쓰는 법이다. 흔히 알려진 일본해 명칭은 한국인에게 침략의 역사를 연상시킨다"면서 "동아시아 역사를 배우는 데 있어 뉴욕주 학생들이 좀 더 총괄적이고 완전한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 법안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을 악하다고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다. 뉴욕에도 이름을 2개 사용하는 지역과 거리가 많듯이 바다 이름을 두 가지로 쓰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원 입법을 주도하는 에드워드 C. 브론스틴 의원도 "일본해라는 (단일) 명칭이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동해라는 이름을 함께 써야 한다는 의견이 오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브론스틴 의원은 또한 "버지니아주에서 동해 병기를 추진한 것을 계기로 동해 병기 입법에 나선 것"이라며 "뉴욕주의 입법 움직임은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마셜 시먼 하원의원도 "다음 세대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과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인 사회는 이르면 이번주 한인 관련 단체들이 대거 참여하는 '미국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 추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으로 입법 지원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조선미기자 seoeun@metroseoul.co.kr

잘 차려진 녀석들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웨스트민스터 케널 클럽 도그쇼에서 원색 주름 된 머리가 잘 정돈된 털을 휘날리며 등장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커피 공짜로 주는 '멍청이 스타벅스'

캐나다 코미디언이 패러디 미 LA에 문 열었다 곧 폐쇄

미국에 '멍청이(Dumb) 스타벅스'가 등장했다.

10일(현지시간) 미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로스앤젤레스에 문을 연 이 커피숍은 '멍청이'라는 단어만 빼면 세계적인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와 똑같은 모습이다.

이곳에는 '멍청이 라테', '멍청이 캐러멜 마키아토' 등의 메뉴가 있다. 멍청이 스타벅스는 지난 주말 손님들에게 공짜로 커피를 제공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가게 앞에 길게 줄을 서 기다린 끝에 개점 기념 커피를 맛봤다.

스타벅스 대변인은 이와 관련 "멍청이 스타벅스는 시애틀에 본사를 둔 진짜 스타벅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멍청이 스타벅스는 전단을 통해 가게를 패러디 아트(풍자 예술) 갤러리라고 밝혔다. 완벽한 커피숍이지만 상표권 등 법률 분쟁을 피하기 위해 공간을 이같이 분류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날 LA 시 당국은 보건 허가 없이 영업한 멍청이 스타벅스에 대해 폐쇄 조치를 명령했다. 결국 멍청이 스타벅스는 문을 열자마자 사라지는 신세가 됐다.

한편 한국에서는 국내 커피 체인점 '엘프레야'가 스타벅스와 유사한 로고를 사용해 '짝퉁 상표'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스타벅스는 엘프레야의 여신 로고가 스타벅스의 인어 로고와 비슷하다며 상표 도용을 주장했다. 하지만 2007년 대법원은 "외관과 호칭이 달라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며 국내 업체 손을 들어줬다. /조선미기자

'월 4900원' 미 알뜰폰 500MB에 통화 무제한

미국에서 가격파괴 이동통신 서비스가 등장했다. 110달러(약 11만 8000원)만 내면 2년간 무제한 통화, 무제한 문자메시지, 월 500메가바이트(MB)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다. 한 달에 4900원 정도 드는 셈이다.

미국 알뜰폰 서비스 업체 '프리덤팝'은 10일(현지시간) 상품 목록에 이 같은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는 삼성 갤럭시 S2(우약정 159달러)와 HTC 에보 4G(무약정 119달러) 등 두 종류다.

프리덤팝은 또한 별도 약정 없이 1년에 79.99달러, 1개월에 10.99달러를 내면 무제한 통화, 무제한 문자메시지, 월 500MB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리덤팝의 최고경영자인 스티븐 스토콜스는 "이동통신 업계의 가격 책정 모델을 파괴하는 것이 신상품을 내놓은 목적"이라고 밝혔다. /조선미기자

CEO의 명품 '대한항공·에쿠스' 12년째 포함

국내 최고경영자(CEO)들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 SK텔레콤, 현대차 에쿠스, 신한은행 등을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로 꼽았다.

경영전문지 월간현대경영은 국내 500대 기업 CEO 204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명품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대한항공과 에쿠스 승용차가 12년 연속 최고 명품 자리를 지켰다고 11일 밝혔다. 2004년부터 조사가 시작된 양주 선호도에서는 발렌타인이 11년째 1위 자리를 이어갔다. 소주는 참이슬이 2년째, 맥주는 카스가 6년째 CEO들의 기호 품목에 올랐다.

갤럭시S(양복), 금강제화(정장구두), 갤럭시S(스마트폰), SK텔레콤(이동통신), 캐논(디지털 카메라), 코웨이(정수기), 삼성래미안(아파트), 신한은행(은행), 신한카드(신용카드), 삼성증권(증권) 등도 올해의 CEO 명품에 이름을 올렸다. /하유성기자 lyslee@

스팸문자 1건당 이통사 10원 이득

최근 스팸메시지 2배 급증 · 정보통신망 빌려주는 행위 제재 필요

A씨는 최근 발생한 카드사 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음을 확인한 뒤 각종 스팸 메시지에 시달리고 있다. 카지노 사이트, 보험, 휴대전화 기업 등을 요구하는 스팸 메시지에 번호를 변경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최근 사상 초유의 카드사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스팸 문자메시지가 급증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신고된 스팸 문자는 260만3157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08만 건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발표가 있었던 지난달 17일을 기점으로 이 같은 차이는 확연히 눈에 보였다. 1월 1일부터 14일까지 신고된 스팸 문자는 44만6479건인 데 반해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신고된 스팸 문자는 173만9885건으로 4배가량의 차이를 나타냈다.

그렇다면 과연 스팸 문자에 대한 대응책은 없을까. KISA는 이동통신사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에 가입하고 스마트폰에 스팸 차단 앱을 설치하면 특정 광고 문구가 포함돼 있거나 특정 번호로부터 수신된 스팸 수신을 예방할 수 있다며 불법스팸 대응센터(spam.kisa.or.kr)로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스팸 문자 활성화에 이통사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한다. 스팸 문자 발송 이용자 등에게 자시 정보통신망을 빌려주는 대가로 문자 1개당 9~10원씩 받는 등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 불법 스팸에 대한 자제 필터링이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또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스팸 문자도 많은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를 위한 노력에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때문에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스팸 차단을 위해 통신사도 자구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면서 "이용자들 역시 스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고하는 등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우현기자 sw0433@metroseoul.co.kr

장애인·70세 이상 세액 공제로 전환

정부가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에서 장애인,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등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 인적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키로 방침을 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세액공제 전환 확대 계획을 오는 20일 신년 업무보고에 담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특정 항목에 쓴 돈을 비용으로 인정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득이 많은 근로자일수록 연말정산 환급 혜택이 많았다.

반면에 세액공제는 총급여를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하고 산출된 세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다. 공제 항목에 쓴 돈이 많거나 소득이 높은 근로자는 과표 기준이 높아지고 환급 혜택이 줄어 불리하다.

지금 장애인은 1명당 200만원을, 70세 이상 경로우대자는 100만원을, 부녀자는 50만원, 한 부모 가정은 100만원을 각각 공제받는다. 이들 항목은 다자녀 추가 공제처럼 1명당 15만~20만원씩 정액 세액공제로 바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유주영기자 boa@

"안 추워서 잘 컸네" 요즘 채소 작년의 반값 포근한 겨울철 날씨가 계속되면서 채소 생산량이 크게 증가해 채소가격이 반값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배추와 양배추의 전국 평균 도매가격은 지난해 동기보다 64.5%나 하락했다. 무(-23.5%), 시금치(-48.4%), 적상추(-43.2%), 당근(-30.2%), 열무(-54.5%), 감자(-27.9%), 애호박(-32.3%), 오이(-48.3%), 깻잎(-43.0%), 양파(-54.3%) 등 대부분 채소류 가격도 폭락했다. /연합뉴스

세계 최대 재보험사 한국 진출 추진

英 로이즈 이르면 내년

세계 최대 재보험시이며 손해보험의 기원으로 알려진 영국의 로이즈가 한국 진출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내년 중 국내에 지점을 설치할 전망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영국 로이즈는 해외 진출을 다각적으로 모색 중이며 그중 한국 시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즈는 2012년 말 현재 90여 개의 신디케이트(기업연합체)와 190여 개의 브로커가 소속돼 영업을 하고 있는 보험시다.

수재보험료는 2012년 말 기준 세계 4위다. 단일 회사라기보다는 개인과 단체회원으로 구성된 협회의 성격을 띠고 있다.

영국 로이즈는 최근 국내 대리인을 통해 한국 보험 시장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보험사 설립 인허가를 맡고 있는 금융 당국과 접촉하며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그동안 해외에서 국내 보험사들과 지속적으로 재보험 거래를 해왔던 로이즈지만 한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즈의 한국 진출은 세계적인 재보험자의 국내 진출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그만큼 한국 내 보험 시장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선진 재보험 기법이 확산되고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재보험 거래를 보다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반면 가뜩이나 작은 재보험 시장에 로이즈가 진입할 경우 국내 재보험 업자인 코리안리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윤제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해외 재보험사들의 국내 법인 설립이 금감원의 보험사 재보험 관리 모범규준에 따른 것으로 국내 재보험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가능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정필기자 roman@

market index <11일>

코스피	코스닥
1932.06 (+6.76)	518.90 (+0.43)

금리	환율
2.84 (-0.01)	1067.20 (-5.30)

뉴스 & 뉴스

소치 올림픽 기념 한정판 시계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모델들이 올림픽 공식 타임키퍼인 오메가의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기념 한정판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은행 첫 한국인 국장

● 소재향(52·여·사진) 세계은행(WB) 물 위생프로그램 과장이 WB 양허성자금 국제협력부(CFP)의 신임 국장에 11일 선임됐다. 현재 세계은행에 진출한 한국인 중에서는 소 신임국장이 가장 높은 관리직이다. 소 신임국장은 서울 출생으로 미국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학사와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받았다. /이국명기자

세종시 전셋값 하락세로

● 정부부처로 치솟던 세종시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1월 세종시 전셋값은 0.35% 내렸다.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내려간 이래 처음이다.

세종시는 지난 2012년 9월 1차 정시 이전이 시작된 이후 공무원 수요가 집중되며 그해 10월 한 달간 6.12%가 오른 것을 비롯해 작년 12월까지 1년여 동안 29.75%나 급등했다. 하지만 2013년 12월 2차 청사 이전과 맞물려 인근으로 세종더샵 센트럴시티 등 총 1944가구가 새로 입주를 시작하면서 전세 물량의 증가로 하락 전환됐다. /이선우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9-155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인환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자봉사	02)721-9871

2002년 5월 31일 정간물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168

신흥국 울어도…美 마이웨이

FOMC 앞둔 연준 의원들 "테이퍼링 적극 지지" 발언

신흥국들의 눈물에도 미국은 '마이웨이'를 고수할 분위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신흥국 금융위기에 아랑곳없이 양적완화 축소 속도를 더욱 높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 18~19일로 예정된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양적완화 축소를 적극 지지하자"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최근 한 연설에서 "양적완화 축소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로서 총재는 연준 내 대표적인 매파(강경파)로, 올해 FOMC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다. 그는 "연준은 실업률이 6.5%로 떨어지기 전에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끝내야 한다"면서 "실업률이 떨어졌을 때 양적완화가 지속되고 있다면 시장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흥국 시장의 변동성은 미국 경제에 큰 리스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은 총재도 "양적완화 축소는 상당 기간 예고돼 온 것"이라며 "기조가 바뀌려면 연준도 예상치 못한 상당히 높은 걸림돌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제프리 래커 리치먼드 연은 총재 역시 최근 한 강연에서 "양적완화 축소를 중단하기 위한 걸림돌은 매우 높아야 한다"면서 "3월 FOMC 정례회의에서도 추가 테이퍼링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미국 FOMC 투표위원이 대거 교체된다. 총 12명의 투표위원 중 7명이 교체 대상이다. /정번지기자 [illegible]

"저 힘 세지 않아요" 자전거 전문기업 알톤스포츠가 11일 서울 종로구 씨드미술관 앞에서 자전거 프레임에 세계유일 고강도 초경량 소재 DP780을 적용한 '코드마스터 R시리즈'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5060세대 희망 은퇴나이 '70세 이후'

2030세대 응답 '64세' 대조

5060세대는 70세가 넘어도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생명은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시니어 트렌드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희망하는 은퇴 나이는 50대가 70세, 60대는 71세로 나타나 2040세대의 은퇴 희망 나이 64세와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자신이 느끼는 심리적 나이에 대해 50대는 6세, 60대는 10세가량 실제 나이보다 적다고 응답했다. 30대가 1세, 40대는 4세 더 어리다고 답한 것과 상당한 대조를 보였다.

나이가 들수록 장수에 대한 기대도 더 크게 나타났다. '언제까지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5060세대 절반가량이 90세 이상 살고 싶다고 답했다. 반면 40대 이하 응답자의 기대 수명은 80대 초반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학철기자

밀크티 즐기는 간편한 방법 전통차 브랜드 오설록이 1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신제품 밀크티하우스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사 표정 오락가락

"바닥친 실적, 오를 일만…" 기대감에 주가 상승
신용등급 줄줄이 떨어져 회사채 등 자금마련 악재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잇단 '어닝쇼크'가 이어지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잠재적 부실 요소를 지난해 실적에 모두 반영한 터라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인식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커진 손실폭만큼 재무구조가 악화돼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실 털어내고 신뢰 회복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실적을 발표한 5대 건설사 모두 4분기 영업이익 감소 및 적자전환을 기록했다. 해외 저가 수주 현장 및 국내 미분양, 미착공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손실을 4분기에 전부 반영한 결과다.

이에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각각 12.3%, 38.6% 줄어든 2075억원, 1258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고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은 4450억원, 3196억원, 1393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이외 현대산업개발, KCC건설, 동부건설 등도 적자로 돌아섰다.

건설사들의 이 같은 부진한 실적과는 달리 주가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의 부실을 모두 털어냄으로써 올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할 수 있는 데다 이를 계기로 바닥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했다는 이유에서다.

조동필 현대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국내외 악성 사업장들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만큼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는 개선될 게 분명하다"며 "이런 기대감에 실적 악화에도 주가가 오르거나 변동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재표 개선이 최우선"

문제는 과격 기대감으로 선행하는 주식시장의 발목을 후행하는 신용평가기관에 잡힐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적 악화에도 강세를 보이는 주가와는 달리 신용등급은 약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기업평가는 최근 대우건설의 신용등급을 A+에서 A0로 하향 조정했고 대림산업의 장단기 신용등급을 부정적 검토(Negative Review) 대상에 등록했다. 또 KCC건설에 대해서는 나이스신용평가가 단기 신용등급(A2+)을 하향 검토 대상에, 한국기업평가가 회사채 신용등급(A)을 부정적 검토 대상에 올려놨다.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또다시 실적이 나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변성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건설사들이 사업을 확장할 때 자기 돈만 갖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크레딧이 보강돼야 한다"며 "재무재표를 개선하는 게 올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올해 건설사들이 부채 비율을 낮춰 재무재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착공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변성진 연구원은 "미착공 PF 사업장은 그동안 금융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마진율이 낮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문제를 마무리 짓고 바닥을 디지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현욱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동양·쌍용·벽산건설 줄줄이 상장폐지 위기

일부 건설주들이 실적악화로 인해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상황이 나은 중대형 건설사의 경우에도 회사채 상환 등 자금 압박이 크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건설은 상폐 원인이 된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변경회생계획을 이달 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이 통과되면 채권단 출자전환으로 부채가 자본으로 전환되면서 완전자본잠식에서 벗어날 여지가 생긴다.

동양건설의 주식은 지난해 적자 실적을 발표하면서 전날부터 거래가 중단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손 충당금이 늘고 보증채무 등에 대한 충당부채 설정이 반영되면서 손실폭을 키웠다. 동양건설은 오는 3월 말까지 상폐 원인을 해소하지 못하면 되돌이 불가능하다.

쌍용건설도 지난달 채권단 추가 출자전환이 무산되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현재 상폐 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벽산건설은 완전 자본잠식으로 지난 5일 거래가 정지됐다.

재무구조 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은 중대형 건설사들도 자금 압박을 겪긴 마찬가지다.

올해 건설업계들이 막아야 할 회사채 만기는 7조원에 육박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정도의 대형사면 무리 없이 회사채 발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승민 NH농협증권 연구원은 "다만 주택 시장이 나아지고 해외 수주가 개선되면 건설업계의 실적이 바닥을 벗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illegible]

'재벌총수 프렌들리' 거꾸로 가는 사법부

한화 김승연·LIG 구자원 회장 집행유예… 재판부 "피해 회복 노력·건강상태 등 고려"… 시민단체들 비판

재계 총수에 대한 법원의 실형 구형 여부를 놓고 관심이 모인 소위 '11일 재계 총수 공판 데이'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최근 정사권의 재계 친화적인 제스처에 이어, 사법부의 다소 무뎌진 이번 판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향후 이어질 재계 총수에 대한 공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대변되는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1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적 치부를 위한 범행과 차이가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1597억원을 공탁했다"며 또 "그간 경제 건설에 이바지한 점, 건강 상태가 나쁜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또 22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도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구 회장의 아들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으로 감형하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재무제표 작성을 통해 채권단과 거래 당사자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장경제질서를 무너트리는 결과를 낳게 한 점은 중대한 기업 범죄"라며 "회생신청 사전계획에 따라 LIG건설이 담보주식 확보를 위해 회생 신청을 미뤄 다수가 피해를 입는 등 파렴치한 범행을 자행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를 배상했고, 구자원 회장의 경우 고령에 간암수술로 인한 합병증 발생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실망의 뜻을 내비쳤다. 이지수 경제개혁연대 변호사는 "김승연 회장이나 구자원 회장의 경우 죄질이 매우 나쁜데도 사법부가 과거로 회귀한 듯한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관용이 아니라 시장에 아주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구자원 회장의 경우 피해를 모두 복구해줬다고 하지만 결국 시장에 사기를 친 것인데 이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단호한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며 "재계 총수가 그룹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맞지만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유재근기자 ksah@metroseoul.co.kr

모바일게임 전용 컨트롤러 로지텍 'G550 파워셀' 출시

모바일게임도 전용 컨트롤러로 플레이할 수 있다.

개인용 주변기기 업체 로지텍코리아가 11일 출시한 'G550 파워셀'(이하 파워셀)을 사용하면 아이폰이나 아이팟을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포터블(PSP)처럼 즐길 수 있다.

현재 다수의 모바일게임 유저는 스마트폰의 액정을 터치하는 방식을 쓰지만 정확도나 손의 피로감 등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파워셀은 아이폰에 부착한 뒤 액정에 터치할 필요 없이 좌·우측에 있는 방향키를 누르기만 하면 된다.

현재 파워셀을 이용해 애플 앱스토어의 50여 개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호환되는 게임은 점차 늘어날 예정이다.

이 제품은 1500mAh 용량의 배터리를 내장해 아이폰의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할 수 있다. 휴대성을 강조해 슬림한 사이즈를 유지했고 컨트롤러를 연결한 상태에서도 전원, 음량, 카메라 버튼 등 아이폰의 기능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신제품은 KT에서 단독으로 판매 중이다.

/정혜인기자 hyune@

'닭고기·오리고기 먹어도 괜찮아요' 11일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한계농가 관계자들이 시식 행사를 열고 닭과 오리고기로 만든 음식을 나눠주고 있다.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은 농가 돕기 차원에서 이달 말까지 유통 마진을 받지 않고 닭·오리고기를 판매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건희 회장 배당금 올해도 1000억 훌쩍

올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상장 계열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1079억원으로 재계 총수 중 1위를 지지했다. 이는 4년 연속 1000억원을 넘는 배당금을 받는 것이다. 2위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493억원)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지다.

재벌닷컴은 11일 자산 상위 10대 재벌 총수가 올해 상장 계열사 수식 보유로 지급받는 배당금이 지난해 2396억원보다 1.7% 증가한 244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총수별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배당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많았다. 이 회장은 대주주로 있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3개사에서 1079억원의 배당금을 받는다. 이는 지난해 1034억원보다 4.4% 늘어난 것이다.

이어 정몽구 현대자그룹 회장의 배당금은 전년보다 1.9% 늘어난 493억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정 회장은 대주주인 현대차에서 222억원, 현대모비스 132억원, 현대글로비스 65억원 등의 배당금을 받는다.

10대 그룹 총수 중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전년 대비 배당금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최 회장은 대주주로 있는 SK C&C의 주당 배당금이 지난해 1250원에서 올해 1500원으로 지난해보다 20% 뛰었다.

반면 구본무 LG그룹 회장,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전년보다 배당금이 줄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192억원)은 LG상사의 주당 배당금이 떨어지면서 0.8%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몽준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배당금 총액은 154억원으로 작년보다 20.0% 감소했다. 정 의원이 최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의 주당 배당금이 실적 부진으로 지난해 2500원에서 올해 2000원으로 줄어든 탓이다.

/김태균기자 ksz1@

주말 설친 '게릴라 보조금' 120만원

이통3사 경쟁 점입가경 논란 되자 '네 탓' 공방

SK텔레콤 휴대전화 판매 단가표(왼쪽)와 LG유플러스 보조금 지급 내역

이동통신 3사가 지난 주말 최신 스마트폰에 120만원 상당의 보조금 폭탄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이통 3사는 이와 관련, 경쟁사가 먼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며 시장을 혼란케 해 가입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 불가피하게 과다한 보조금 경쟁을 펼치게 됐다며 네 탓 공방을 펼치고 있다.

SK텔레콤은 11일 "지난 주말 LG유플러스 주도의 보조금 폭탄이 번호이동 시장을 사상 최대의 과열로 몰고 갔다"며 "(LG유플러스 측이) 갤럭시S4 LTE-A에는 1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이로 인해 1만2691건의 순증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주말 불법 보조금으로 통신 시장을 먼저 흔든 것은 경쟁사"라며 "오히려 7일 KT가 불법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고 이를 SK텔레콤이 따라갔고 LG유플러스도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뒤늦게 보조금 경쟁에 나섰다"고 말했다.

실제로 11일 새벽까지 출고가 94만6000원인 애플 '아이폰5S 32GB'는 10만원, 출고가 106만7000원인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3'는 15만원에 이역 가입을 받으며 판매 휴대전화 할인 구매 사이트가 다운되기도 했다. 이후 해당 휴대전화 판매점에는 새벽부터 이 같은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재영기자 ljy@

착한 기업 '에코 메아리'

자연훼손 주범서 자원보호 주체로… 기업들 마케팅 진화중

기업 마케팅이 이젠 자원 보호 단계로 진화했다. 자원 훼손의 주범으로 인식됐던 기업이지만 '착한 회사'가 뜨면서 자원을 보호하는 주체로 이미지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체험 기회를 주는 고도의 '원려 마케팅' 전략으로 삼고 있다.

삼성전자는 물과 공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 마케팅에 한창이다.

먼저 세탁기 브랜드 '버블샷3'에서는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10인과 함께 어린이에게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그림책 '물방울아 내가 지켜줄게'(사진)를 제작했다.

영국 대표 작가 브라이언 와일드스미스, 앤서니 브라운, 덴마크의 한나 바르톨린 등 스타 작가가 참여했다. 양치하는 동안 물 잠그기, 강이나 호수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 물 아껴주는 세탁기 사용하기 등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 방법들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돼 아이들이 쉽게 물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도록 했다.

또 삼성전자는 서울 잠실의 어린이 테마파크 키자니아에 공기청정기 연구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실험 프로그램과 장비로 호흡기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 속 미세먼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깨끗한 공기의 가치와 공기 청정의 중요성을 몸소 깨달을 수 있도록 했다.

현대차그룹은 연간 1000명 규모의 청년 봉사단을 선발해 해외 봉사활동 현장에 파견하고 있다. 이들이 틀어졌던 대표적인 무대가 중국 내몽골이다.

봉사단은 사막화가 급속히 이뤄지는 이곳에서 모래에서도 잘 견디는 현지 토종 식물의 종자를 대량으로 파종해 최근 5년간 5000만㎡(약 1900만 평)에 이르는 사막을 푸르게 만들었다.

아울러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은 제네시스 숲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HMA는 브라질 열대우림을 보호·조성하는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이끌어갈 예정이다.

지킨 브랜드 지킨미루는 독도 사랑 애니메이션 '독도를 지킨 33인의 영웅들'의 제작을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작품은 이미 TV에서 방영됐고 곧 전국 초등학교의 학습 부교재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지킨미루는 모든 매장 인테리어와 포장재, 비닐, 상품권에 '비지트 독도(Visit Dokdo)' 문구를 넣어 독도 사랑을 유도하고 있다.

/박상훈기자

음악도 와이파이로 간편하게 11일 서울 중구 남산동 세기빌딩에서 오디오 전문 브랜드 보스(BOSE)의 모델들이 와이파이(Wi-Fi)를 기반으로 한 무선 오디오 '사운드터치 뮤직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웅진홀딩스 조기졸업장

법정관리 1년4개월만에 종결… 그룹 재기 발판

웅진그룹의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조기 졸업에 성공하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웅진홀딩스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조기 종결 결정을 받았다. 지난 2012년 10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1년4개월 만이다.

1조5002억원의 부채를 갖고 있던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 웅진케미칼 등 계열사 매각과 윤석금 회장 일가의 사재 출연을 통해 1조1765억원(78.5%)을 상환했다.

담보 채권은 100% 현금 변제했으며 무담보 채권도 70%는 현금으로 갚고 나머지 30%는 출자전환을 거쳐 주식으로 교부했다.

현재 주가 3520원(2월 10일 종가 기준)을 고려한 무담보 채권 실질 변제율은 84.1% 수준이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다른 기업들의 현금 변제율은 통상 10~40% 수준이다.

웅진홀딩스는 잔여 채무 3233억원 중 1767억원을 올 상반기 중 추가 상환할 예정이다.

이번 법정관리 조기 졸업과 함께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난 웅진홀딩스는 자율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 다만 회생계획안에 따라 잔여 채무를 충실히 변제해야 하고 일부 사안은 채권단의 사후 관리를 받는다.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는 "남은 채무를 2022년까지 분할 변제하도록 돼 있지만 최대한 일찍 채무를 완전히 갚는 것이 목표"라며 "주력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채권단과 임직원의 성원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웅진그룹은 웅진코웨이, 웅진케미칼, 웅진식품 등 매각으로 외형은 축소됐으나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은 개선됐다. 2012년 매출 5조5000억원, 영업손실 177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매출 1조2000억원, 영업이익 129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영기자

1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SETEC에서 인피니티가 미래형 럭셔리 세단 '더 뉴 인피니티 Q50'을 선보이고 있다.

인피니티 준대형 세단 Q50 국내 출시

인피니티가 새로운 준대형 세단 Q50(더 뉴 인피니티 Q50)을 11일 국내에 출시했다.

뉴 인피니티 Q50은 2.2ℓ 디젤 모델(Q50 2.2d)과 3.5ℓ 하이브리드 모델(Q50S 하이브리드)로 출시됐다. 디젤 모델은 프리미엄과 익스클루시브 두 가지가 나온다.

Q50 2.2d 모델은 직분사 4기통 터보 디젤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170마력, 최대 토크 40.8kg.m의 힘을 낸다.

Q50S 하이브리드는 50kW(68마력) 전기모터와 V6 3.5ℓ 가솔린 엔진(306마력)의 조합으로 총 최고 출력 364마력의 강력한 성능을 보인다. Q50S 하이브리드에는 2011년 영국 카 매거진 테스트를 통해 가장 빠른 하이브리드 차로 기네스에 등재된 Q70S 하이브리드 모델의 엔진에 자세대 조경량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함으로써 차체를 더욱 경량화했다. 공인 복합연비는 디젤과 하이브리드 각각 15.1km/ℓ, 12.6km/ℓ다.

인피니티는 Q50 출시를 한국 시장에서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가격을 수입 시장 대비 최대한 공격적으로 책정했다. 뉴 인피니티 Q50의 가격은 2.2d 프리미엄 모델 4350만원과 익스클루시브 모델 4890만원이다. 프리미엄 모델 동급 사양의 수입 가격이 5000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파격적인 가격이다. Q50S 하이브리드 모델은 6760만원이다.

뉴 인피니티 Q50은 인피니티의 Q 엠블렘체계 전략 발표 후 첫 신차다.

곡선으로 이뤄진 우아한 외관, 동급 경쟁 모델 대비 최대이며 상위 세그먼트 모델과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여유로운 실내 공간이 장점이다. 인피니티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 적용한 다이렉트 어댑티브 스티어링 및 전방 추돌 예측 경고 시스템 등 혁신적인 첨단 기술도 대거 탑재했다. 또한 F1 4연승 챔피언 제바스티안 페텔이 개발에 직접 참여하며 검증한 강력한 성능까지 겸비했다.

뉴 인피니티 Q50의 외관은 인간과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유려한 곡선 디자인으로 완성됐다. 인피니티의 콘셉트카인 에센스, 에세라, 이머지의 디자인 DNA를 계승했다.

/채명석기자

SK그룹 사상 첫 '수출 > 내수'

SK하이닉스 인수 주효 5조5589억원이나 앞서

사상 최초로 SK그룹의 수출이 내수를 앞질렀다. SK그룹의 수출이 내수 비중을 넘어선 것은 지난 1953년 그룹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완벽한 수출기업으로 변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11일 SK그룹에 따르면 상장 15개 계열사의 지난해 연간 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 147조9065억원 중 수출은 76조7322억원(51.9%), 내수는 71조1732억원(48.1%)으로 나타났다. 수출이 내수를 5조5589억원 초과했다.

또 그룹 내 비상장 계열사 중 주력회사인 SK E&S·SK해운·SK건설 등을 포함해도 그룹 전체 수출 실적이 내수를 앞섰다.

이는 SK그룹의 주력 사업 부문이 과거 에너지와 통신 중심에서 탈피해 화학, 반도체, 석유화학 등 수출형 중심으로 재편된 것을 의미한다고 SK는 설명했다.

SK그룹은 지난 2011년까지만 해도 수출이 내수보다 19조5692억원가량 적었다. 이 격차가 지난 2012년 SK하이닉스를 인수한 뒤 7818억원까지 줄면서 균형을 맞췄고, 드디어 지난해부터 수출이 내수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김기곤기자

국내 최초 한일 동시 공연!
세종문화회관이 선택한 뮤지컬 〈삼총사〉

MUSICAL
삼총사
THE THREE MUSKETEERS

2014.02.18 티켓오픈

2014.3.14 ~ 3.30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www.musicalthreemusketeers.com

삼성전자가 찾고 있는 SW전문가에 도전할 만

세계 정보기술(IT) 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도 소프트웨어(SW) 전문가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SW 전문가에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는 평가다.

11일 삼성그룹 채용 사이트 삼성커리어스(www.samsungcareers.com)에서 진행 중인 경력 채용 공고 21건을 살피보면 전기전자 SW 분야의 인재를 찾는 공고가 6건으로 전산·컴퓨터 분야와 함께 가장 많았다. SW는 전산·컴퓨터와 달리 전문 영역인데도 경력 공채 수요가 많았다.

SW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모집 영역도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DMC연구소,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생활가전사업부, 네트워크사업부 등으로 다양하다.

삼성이 이처럼 SW 전문가를 찾는 데 혈안이 된 것은 인력 수급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분야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산업연구원 조사에서는 SW 분야의 고급 인력 미충원율이 33%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삼성 컨버전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CSA)' 교육과정을 지난해 신설한 이유도 SW 엔지니어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정부도 SW를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SW 전문가에 도전하는 청소년·대학생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국범기자

직장인 눈 건강 지켜드려요 11일 서울 중구 올리브영 명동본점에 마련된 아큐브 아이 디자인 스튜디오를 찾은 고객이 눈 건강을 진단받고 있다. /연합뉴스

예비 대졸자 절반 '채무자'

올해 대학을 졸업하는 예비 졸업생의 절반 정도가 '빚(대출)'을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올해 대학을 졸업(4년+가을)하는 예비 졸업생 228명에게 '빚과 취업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빚을 진 원인은 학비(75.7%)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처음 본인 명의의 빚을 낸 시기도 대학 1학년 때라는 응답자가 45.9%로 가장 많았다.

빚을 진 곳은 금융기관(78.7%)이 대부분이었으나 사금융기관을 이용했다는 답변도 6.8%에 달했다. 평균 빚의 규모는 1275만원으로 집계됐다. /채국범기자

"악덕 상사가 날 철들게 했죠"

코칭&컴퍼니 이끄는 우용표 대표

대기업 다니면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및 베스트셀러 집필·사표 낸 후 대학원 진학과 창업

많은 직장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력을 지닌 코칭&컴퍼니 우용표(39) 대표를 만났다. 그에게 비결을 묻자 "악덕 상사를 만나서 자기계발에 열중하게 된 것이 계기"라고 웃었다.

서강대 경영학과 94학번인 그는 드라마 '응답하라 1994' 처럼 신촌을 누비며 학교 생활을 즐기기 바빴다. 대학 시절 터진 IMF는 군 제대 후 수습이 됐다. 2000년대 들어 경제 회복세를 보이자 기업들은 채용 규모를 늘리기 시작했고 우 대표는 LG전자 해외영업팀에 거뜬히 합격했다.

그는 "학벌에 콤플렉스가 있거나 취업 스펙이 안 좋다고 생각했다면 인생 계획을 촘촘히 세우고 자격증 취득·학점 관리 등 뭐라도 열심히 했을 것"이라며 "대학 진학, 대기업 합격 등 작은 성공이 연연한 것이 나태함을 낳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생의 큰 성공이 아닌 현실에 눌러 앉은 세월이 후회된다"면서 "사회인이라면 지금 내 모습이 대학생 때 꿈꾸던 모습인지, 10년 전 기대했던 미래인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직장 생활에선 능력보다 태도 중요

대학 시절과 달리 직장 생활은 불구덩이었다.

우 대표는 "나는 미운 털이 박힐 대로 박힌 사원이었다"면서 "내 태도도 문제였고, 악마 같은 상사까지 만나니 '헬'을 들어가며 혼났다"고 밝혔다.

미운 털의 시작은 첫 출근 일주일 만에 작용한 귀고리에서부터 시작됐다. 소개팅 여성에게 잘 보이려고 한 패션이 화근이었다. 협력 부서에 '급한 사안이니 빠른 협조 바랍니다'라고 쓰는 e메일은 '우리 팀도 바쁘다. 당신은 어거적으로 근무한다'란 지적을 낳았다.

동료 뒷담화를 적은 메시지를 해당 동료에게 잘못 보내 싹싹 비는 일도 있었다. 자신의 근태 과시를 위해 부하 직원을 닦달 볶는 상사까지 만나면서 지옥의 회사 생활이 반복됐다.

우 대표는 "연초 목표 대비 3배 이상의 실적을 낸 적이 있는데 내 인사 평가는 '최하'로 나오더라"면서 "직장 생활은 능력보다 태도가 중요함을 깨달았다. 상사에게 덜 혼나기 위해 자기 계발에 힘쓰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점심 시간을 쪼개 시내 지하 서점에서 매일 책을 읽었고, 밤샘 공부하며 4수 끝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손에 쥐었다.

◆신입사원 상식사전, 이어 재테크 책 준비

자신의 직장 생활 실패담과 생존 노하우를 책으로 내고 싶다는 꿈도 꿨다. 기획안을 보낸 출판사 30곳 중 한 곳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온 결과 베스트셀러 '신입사원 상식사전'이 탄생했다.

이후 직장 생활 7년 만에 사표와 함께 부동산 대학원 진학을 했다. 현재는 박사과정 대학원생이자 직장인 업무 계발 사업가로 활동한다. '바른살 재테크 상식사전' 등 후속작도 꾸준히 쓴다.

우 대표는 "충분한 계획 없이 '욱' 하고 사표 쓰지 마라"면서 "상사 때문에 이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새 직장에도 악덕 상사는 있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바람직한 상사 리더십은 직무에 충실하며 업무 끝나면 인과를 종료하는 것"이라면서 "부하 직원의 경우 잘못을 지적했을 때 여성은 감성에 호소하고 남성은 내 탓 아니라고 변명하는 경향이 있는데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자세가 먼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돌아켜보니 악덕 상사를 만난 것은 축복이었다"면서 "덕분에 책도 쓰고 내가 원하는 길을 찾을 수 있었다"면서 호탕하게 웃었다. /김유리기자

김봇출진 서울에서 만난 우용표 대표가 자신이 저술한 직장인 자기계발서를 소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나도 신촌 누비던 '응사세대'
호된 직장 생활 탈출하려고
시간 쪼개 자기계발에 몰두

직장인 능력보다 태도 중요
욱 해서 사표 쓰기 전 잠깐!
어디에도 불량 상사 있을것

장윤희 기자의 투잡 체험기

스피치트레이닝 ⑯

'나'를 팔고 싶을 땐 쇼핑호스트처럼!

홈쇼핑 진행자의 현란한 말솜씨는 채널을 붙들어놓게 한다.

상대방을 몰입하게 만드는 홈쇼핑 스피치에는 설명과 설득의 맞짝기가 동시에 담겨있다. 제품을 소개하면서 구입을 유도하는 홈쇼핑 스피치를 익히면 취업을 준비하거나 직장 생활을 할 때 유용히 적용된다.

홈쇼핑 스피치의 특징 첫 번째는 신뢰감 부여다. 수상 실적, 사용 후기, 설문조사, 뉴스 방영 제시 등을 통해 콘텐츠의 우수함을 입발 수 있다. 특히 본인의 제품 체험담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들려주면 소비자의 관심을 얻기 용이하다.

두 번째는 장점 드러내기다. 제품의 맛, 특징, 경쟁력, 이벤트, 잠밋발 전망 등을 유감없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품을 설명하면서 장점을 조목조목 짚어주면 자연스러운 말하기가 된다.

세 번째는 판매 포인트 겨냥이다. 주 고객이 누구인지,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제품을 소개할지 등에 대한 구상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한다. 과녁을 향해 화살을 꽂자게 쏘듯이 판매 포인트를 명확히 정해 흔들림 없는 스피치를 이어가야 한다.

W스피치 도움을 받아 배운 내용을 실습해봤다.

첫 번째 주제는 '나를 어필하기'였다. 기시의 경우 "글쓰기, 말하기, 엔터테인먼트 특강이 있다. 적재적소에 능력 발휘가 가능하다"식으로 발표했다. 두 번째 주제는 '애장품 판매하기'였다. 한 수강생은 "오래된 애장품으로 남편이 있다"면서 "직업상 병원 진료 무료 혜택이 있다"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다음 회에서는 토론 잘하는 법에 대해 알아본다. /장윤희

소치 응원군 "야식 먹고 합시다"

경기시간 따라 메뉴 선택해야 속 부담 덜해
피자·통닭 배달 기다릴 필요없는 간편식 '굿'

소치올림픽이 개막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림픽 경기를 응원하면서 맛있는 간식을 먹는 것은 놓칠 수 없는 올림픽의 재미다. 러시아와의 5시간 시차로 인해 모든 경기가 늦은 저녁부터 중계되기 때문에 응원 간식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허기나 과식 없이 경기를 즐길 수 있다.

올림픽 시즌 동안은 인기 배달음식 주문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조리할 수 있는 간편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삼립식품에서 출시한 '리얼 피자'는 전자레인지에 2~3분 정도 데우면 피자전문점에서 갓 구워낸 듯한 따뜻함과 신선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국민 야식 닭고기도 집에서 편리하게 조리할 수 있다. 오뚜기의 전자레인지용 미트유 '바삭한 닭강정'은 전자레인지에 1분30초만 돌리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중국집에서 주문할 수 있는 음식도 즉석에서 준비할 수 있다. 대상 청정원의 프리미엄 냉동만두 '떡갈비군만두'는 한입 크기로 먹기에 알맞도록 원형으로 만들어 아이들도 쉽게 먹을 수 있다.

아워홈의 식품 브랜드 '손수의 쫄짜면'은 한 제품으로 두 가지 요리를 식사 대용식으로 간단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다.

쇼트트랙 차세대 에이스 심석희의 주 종목인 1500m는 반드시 챙겨야 할 경기로 손꼽힌다. 15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되는 경기를 위한 '심석희 경기시간 간식'은 저녁 식사 전 간단하게 출출함을 채워줄 수 있는 제품들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돌 코리아의 '후룻볼'은 휴대하기 간편한 사이즈로 출시돼 언제 어디서나 과일을 섭취할 수 있는 제품으로 깔끔하게 식전 허기를 달랠 수 있다.

풀무원다논의 '액티비아 KISS'는 기존 제품 대비 25% 증가한 용량으로 든든하게 즐길 수 있어 식사 전 허기를 달래기 좋은 제품이다.

가장 기대하는 금메달리스트는 단연 피겨퀸 김연아다. 20일과 21일 자정인 경기 시간 동안 지나치게 고열량의 제품이나 도수가 높은 술을 마시면 소화불량과 숙취로 다음날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저도주와 저열량 제품으로 건강을 챙기는 것이 좋다.

하이트진로음료에서 출시된 무알코올 맥주 '하이트 제로'는 칼로리 걱정으로 맥주를 자제하는 경우에 효과적인 음료다. 제품 1병 500㎖의 칼로리는 60㎉로 같은 분량의 콜라가 120㎉, 사이다가 160㎉에 그쳐 열량에 대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써머스비는 천연 사과를 발효시켜 만든 애플사이더로 지난해 한국에 첫 출시됐다. 알코올 함유량이 4.7%로 낮아 다음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주지 않고 청량감이 뛰어나 신나게 파티에서 즐기기 좋다.

/정혜인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아웃도어스 응원댓글 행사

아웃도어 전문 쇼핑몰 아웃도어스가 소치 동계올림픽에 참여한 우리나라 선수들의 승리를 기원하며 '대한민국 파이팅!'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23일까지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에 댓글을 남겨 태극전사들을 응원하는 방식으로 아웃도어스와 패밀리 사이트인 하프클럽, 오가게에서 동시에 열린다.

응원 댓글을 남긴 고객에게는 아웃도어스와 하프클럽, 오가게에서 이용 가능한 금·은·동 3종 파격할인 쿠폰이 즉시 발급된다.

또 이벤트 종료 후에는 7명을 추첨해 순금 골드바 1돈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모바일에서도 이벤트 응모가 가능하며 특히 피워쿠폰을 사용해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순금 당첨의 확률이 높아진다.

박상윤 트라이씨클 마케팅 팀장은 "동계올림픽으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고조돼 있는 시점에 응원이라는 국민 공동 정서를 마케팅과 접목한 고객 참여형 이벤트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박하은기자

'로맨틱 물방울' 로제 와인

데이트에 어울리는 대표적 핑크빛 와인 4종

밸런타인데이가 다가왔다. 로맨틱하고 낭만 가득한 특별한 날을 위해 오감을 만족시켜 주는 아름다운 핑크빛의 향기로운 와인과 함께하는 데이트는 어떨까?

로제 와인은 로맨틱한 핑크빛이 시선을 먼저 사로잡고 장미의 붉은 꽃잎을 연상시키는 와인 향기는 후각을 자극한다. 와인 잔에서 찰랑거리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면 적당한 알코올이 기분을 좋게 한다. 스파클링 로제 와인은 입안에 맴도는 버블이, 드라이한 로제 와인은 음식과의 이상적인 조화로 로맨틱한 데이트에 제격이다.

◆에스텔라도 핑크 밸런타인데이 에디션

에스텔라도(Estelado)는 옅은 핑크빛의 아름다운 로제 스파클링 와인으로 섬세한 버블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눈을 즐겁게 하고, 붉은 과일과 감귤류의 과일 향이 코를 즐겁게 한다. 입안에서는 칠레에서 가장 오래된 품종인 파이스(Pais) 특유의 신선함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와인이다. 2012년과 2013년 2년 연속 칠레 와인 어워드에서 '칠레 베스트 스파클링 와인'으로 선정될 정도로 품질도 뛰어나다.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핑크 패키지에 담은 '밸런타인데이 핑크 에디션'을 선보였다. 소비자가격은 3만2000원.

◆라 비에이 페름 로제

라 비에이 페름 로제는 프랑스 론 지역 와인 명가 페랑(Perrin)이 생산하는 로제 와인이다. 페랑 가문은 지난해 졸리 피트 와인을 만들어낸 곳으로 유명해지기도 했다. 에어프랑스와 KLM의 기내 와인으로 선정됐으며 가격 대비 뛰어난 품질로 각종 언론과 평론가로부터 베스트 밸류(가격 대비 큰 가치가 있는) 와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체리·딸기 등 과일 향과 흰 꽃 향기가 잘 어우러진 와인이다. 소비자가격은 1만8000원.

◆로버트 몬다비 우드브릿지 화이트 진판델

미국을 대표하는 로버트 몬다비가 만든 대중 브랜드 우드브릿지의 로제와인. 우드브릿지는 '베스트 밸류 브랜드(Best Value Brand)'로 선정될 정도로 가격 대비 품질이 뛰어나다. 싱싱한 과일 맛이 잘 살아있으면서 드라이한 맛으로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린다. 소비자가격은 2만1000원.

◆클라랑델 로제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제 와인이다. 보르도 1등급 와인 샤토 오브리옹에서 만든 캐주얼 로제 와인으로 가격 대비 품질이 매우 좋으며, 완벽한 균형미와 개성적인 향을 가진 와인이다. 소비자가격은 3만2000원.

/정혜인기자

복지시설 아이들 롯데월드서 신나는 한때 11일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마련한 '아동복지시설 아이들의 특별한 밸런타인데이' 초청 행사에서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아동복지시설 아이들과 따뜻한 정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롯데월드 제공

수제 초콜릿·웰빙 빵 "와~ 쉽다"

남친 위한 DIY 선물 준비 큰 도움되는 주방 제품들

직장인 김지은(27)씨는 밸런타인데이만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 이날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기 때문. 그녀의 고백이 성공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정성은 많이 들어가지만 직접 만들자니 번거로운 초콜릿과 초코 브라우니.

'락앤락글라스 유로'(사진)는 400도가 넘는 오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내열유리 소재로 만들어져 다양한 온도의 조리 환경에서도 안전할 뿐 아니라, 냉장 보관 시 강력한 밀폐력으로 냉장고 속 음식 냄새도 배지 않는다.

밸런타인데이 하면 초콜릿이지만 건강이 최우선인 웰빙파라면 사랑하는 이를 위해 웰빙 밸런타인 브레드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모뉴엘이 출시한 제빵기 '마이리틀 베이커리'는 반죽이나 발효, 온도 맞추기 등 홈 베이킹 시 어려웠던 문제를 쉽게 해결해준다.

특히 모뉴엘이 개발한 레시피 북을 함께 제공해 우유빵에서부터 크랜베리호두빵, 고소한밤빵·피자도우·찹쌀떡·요구르트 등 총 35가지 메뉴를 만들 수 있다.

카페 드롭탑은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디제이(DJ) 초코탑'을 선보였다. 'DJ초코탑'은 아이스크림과 토핑 위에 초코판을 얹은 후 핫초코를 부어 녹여 먹는 진한 쇼콜라쇼 메뉴로 초코펜으로 문구를 새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박하은기자

네이처케어 오메가3 제품

타파웨어 브랜즈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네이처케어가 '오메가 3 플러스'를 출시했다.

오메가 3 플러스는 노르웨이산 안초비에서 추출한 오메가 3를 함유해 혈행 개선과 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이다. 제품의 주요 성분인 오메가 3에는 EPA와 DHA가 1일 섭취량 기준 2000mg 함유돼 있으며, 노르웨이 바다의 정제어유를 주원료로 하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특징이다.

오메가 3 플러스는 오메가 3의 비린 맛을 최소화 하기 위해 천연 오렌지 오일을 첨가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제품은 전국 타파웨어 대리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제품 문의는 타파웨어 브랜즈 홈페이지(www.tupperwarebrands.co.kr) 또는 고객 상담실(080-023-6811)로 하면 된다. /박하은기자

제주항공 대구~제주 운항

제주항공은 7월 3일부터 제주항공의 4번째 국내선인 대구~제주 노선을 운항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규 취항한 노선은 대구와 제주에서 각각 2회씩 운항하며, 모든 편에 189석의 B737-800 항공기가 투입된다. 대구~제주 노선은 다음달 3일부터 제주항공 홈페이지, 예약센터 등에서 예약할 수 있다.

'체리 커플 쿠폰북' 증정 행사

베스킨라빈스가 신제품 '미스터(Mr.)체리초코'와 '미세스(Ms.)체리치즈' 출시를 기념해 '체리 커플 쿠폰북' 프로모션을 펼친다.

베스킨라빈스는 1만원 이상 구매 시 아이스크림 케이크 할인, 사이즈 업 등 1만원 상당의 다양한 쿠폰이 들어있는 '체리 커플 쿠폰북'을 증정한다. 쿠폰북 행사는 제품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쿠폰 사용기간은 3월 30일까지다.

한경희 "백 솔루션" 20% 할인

한경희생활과학이 20일까지 신학기 증후군을 날려줄 '백 솔루션'으로 바리 위 '성적 업' 이벤트를 진행한다.

백 솔루션을 한경희 공식 쇼핑몰에서 20% 할인된 19만8000원에 제공하며 문화상품권을 추가로 증정한다.

한경희 백 솔루션은 책상과 의자가 세트로 구성돼 책상에 앉을 때 목부터 허리까지 편안하고 건강한 자세가 되도록 동시에 잡아주는 '아동 케어 시스템'의 기능성 책걸상이다. /박지원기자

<불타는 금요일>

'불금 밸런타인'에 달아오른 호텔

14일 수제 초콜릿·디너·1박 패키지 등 연인 위한 로맨틱 이벤트 풍성

연인들의 최대 기념일 밸런타인데이다. 이에 명품호텔들이 연인들을 위한 로맨틱 이벤트를 준비했다.

먼저 밀레니엄 서울힐튼이 14일 저녁 이탈리아 레스토랑 일폰테와 프랑스 레스토랑 시즌즈에서 '밸런타인데이 특별 메뉴'를 선보인다. 특히 시즌즈는 초콜릿 전문 셰프 레미 엔리를 프랑스에서 초청했으며 델리키트슨 실란트로 델리는 14일까지 다양한 종류의 수제 초콜릿과 캔디를 판매한다.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도 14일 하루 동안 로맨틱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더 비스트로에서는 프렌치 셰프 게트릭 기베르가 직접 요리하는 '미어 로맨틱 밸런타인 디너'가 제공되며 뷔페 레스토랑 더 스퀘어는 커플 손님에게 밸런타인데이 스페셜 수제 초콜릿 박스를 선물로 증정한다.

롯데호텔서울은 로맨틱 패키지 '위 러브 어스'를 오는 14일부터 1년까지 선보이며 롯데호텔월드는 13일부터 16일까지 디럭스 객실에서의 1박을 포함하는 '위 러브 어스 II' 패키지를 준비했다.

이와 함께 머큐어 서울 앰배서더 강남 쏘도베 호텔은 '로맨틱 밸런타인'과 '러블리 밸런타인' 패키지를 출시했다. '로맨틱 밸런타인'은 사랑하는 사람과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상품이며 '러블리 밸런타인'은 저녁 식사 후 루프 톱 바(Roof top bar)인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한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와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는 각각 호텔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로맨틱 스페셜 디너'를 마련했으며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은 카페 이미가, 델리 어마도르에서 '밸런타인데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인터컨티넨탈 제공

하얏트 리젠시 인천의 '비 마이 밸런타인 패키지'도 있다. 14일 하루 동안 운영되는 패키지로 객실에서의 1박, 2층 테라스룸에서의 4코스 저녁 식사가 제공되며 투숙 후기를 하얏트 리젠시 인천 페이스북에 올리면 미니 스파클링 와인 한 병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은 레스토랑에서의 로맨틱 디너 등이 포함된 '로맨스 패키지'와 각 레스토랑에서 밸런타인 스페셜 메뉴를 선보이며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의 '비 마이 러브' 패키지를 이용하면 조식 서비스와 함께 호텔 1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리는 '재즈 인 더 시티' 티켓도 받을 수 있다.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은 뷔페 레스토랑 더 킹스에서 스페셜 메뉴와 이벤트를 준비했다. 또 인터내셔널 다이닝 레스토랑 카페 드 셰프에서는 '밸런타인데이 스페셜 접전 이', 로비라운지&델리에서는 '초콜릿 선물세트'가 연인을 기다리고 있다.

/송재원기자 hssol@metroseoul.co.kr

츄파춥스가 만든 '초콜릿' 어떤 맛일까 막대사탕 브랜드 츄파춥스가 11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에서 이탈리아 프리미엄 초콜릿 '비추 드 아모르'를 선보이고 있다. 츄파춥스는 초콜릿 출시를 기념해 14일까지 구매 고객에게 하트 풍선과 플라워 패키지를 증정한다. /츄파춥스 제공

입소문을 부탁해!…뷰티 샘플 팍팍 쏜다

리리코스·프리메라 등 손짓

좋고 나쁜 건 직접 써봐야 안다. '입소문'이 큰 역할을 차지하는 화장품 업계가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대규모 샘플링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리리코스는 최근 '성니짱 에센스'로 유명해진 '마린 트리플 트리트먼트'의 3만개 판매 돌파를 기념해 사은 행사를 벌인다. 이달 말까지 전국 백화점 리리코스 매장에서 본품(140㎖, 5만원대)을 구매하는 고객 선착순 3000명에게 대용량 샘플을 증정한다.

프리메라는 '슈퍼 스프라우트 세럼' 출시를 기념해 1만 명에게 신제품 키트를 증정하는 '응답하라 어린생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프리메라 공식 페이스북에서 '나만의 포털 화면' 만들기에 참여한 뒤 체험 키트를 신청하면 된다. 슈퍼 스프라우트 세럼은 흑미·흑/콩·흑깨 3가지 슈퍼 시드와 브로콜리 새싹 에너지를 근간으로 만든 미백·주름 이중 기능성 안티에이징 세럼이다.

존슨즈베이비는 4월 12일까지 '우리 아기 피부가 달라졌어요' 이벤트를 실시한다.

4월 12일까지 존슨즈베이비 홈페이지에서 열린다. 이기 피부 성격을 진단한 모든 참여자에게 수딩 및 베이비내추럴 체험키트(로션·워시)를 증정한다.

또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수딩·내추럴 대용량 샘플키트, 에코백 등을 추가로 선물한다. /박지원기자

탐스 슈즈 봄 컬렉션 공개

● 탐스(TOMS)가 11일 2014년 '봄 컬렉션'을 '원 파인 스프링 데이'를 공개했다.

탐스의 봄 컬렉션은 페이즐리, 플라워 패턴과 생동감 넘치는 컬러, 구멍 난 소재 등을 사용해 봄의 싱그러움을 전하고 있다. 여성용 '수지 플랫'을 비롯해 남성용 로퍼 '시바도스', '빠세오 미드' 등을 선보였다.

글리소메드 온라인몰 할인

● 캐나다 핸드크림 브랜드 글리소메드가 공식 온라인몰 오픈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회원 가입 고객에게 20% 할인 쿠폰을 증정하고, 제품 구매 시 결제 금액의 10%를 적립해 준다. 이벤트 혜택은 핸드크림·풋크림·보디로션 등 전 제품에 해당된다.

수오미, 하이 서울 브랜드로

● 물티슈 업체 호수의나라 수오미는 '2014년도 하이 서울 브랜드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물티슈 업계 최초로 '대한민국 로하스 인증'을 받는 등 친환경 제품 생산에 힘써온 점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심리학의 불편한 진실

현대인의 불안·성공 욕구 악용 만병통치약 군림… 상업적 변질 고발

최근 몇 년 동안 공포·중독·강박·우울증·섭식장애 등 '심리장애'가 있다고 진단받은 사람들이 눈에 띌 정도로 늘어났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기술자의료보험조합에 등록된 3400만 명의 가입자 중 정신질환으로 병가를 낸 사람의 수가 2010년 한 해만 해도 14%나 증가했으며 2011년에는 6명 중 1명꼴로 정신질환으로 병가를 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정말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독일의 심리학 전문 잡지 '커뮤니케이션 가이스트'의 편집장인 저자는 이에 대해 "'정신병'으로 진단받은 모든 것을 곧이곧대로 믿지 말라"고 일갈한다.

그는 병을 앓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정신질환으로

심리학에 속지 마라 | 스티브 아얀/부키

진단하는 횟수가 늘어 정신질환이 증가했다고 설명한다.

또 그 결과로 심리학이 정신과 의사나 관련 의약 분야에 돈을 벌어다 주는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현대인의 만병통치약으로 군림하는 심리학이 인간의 마음속 불안과 성공 욕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에 그는 모차르트 음악효과, 전말과 MBTI의 보순 등 다양한 심리 실험과 통계·사례를 통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심리학의 환상을 철저히 까부수고 있다.

특히 그는 책을 통해 생활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슬럼프, 사랑으로 인한 괴로움, 가족 간의 불화 등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병으로 진단되고 이것이 반드시 고쳐야 할 위기 상태로 결론지어지면서 일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심리학이 심리적 장애를 줄여줄 수는 있겠지만 성공적인 삶을 위한 길은 결국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그의 교훈인 셈이다.

어느 심리전문가의 강연회를 찾았다가 마치 종교 부흥회와도 같은 사람들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아 완성된 그의 심리학 고발서를 만나 보자. /메타인기자

책 속 한 컷 | 가장 가난한 곳의 변화

가장 가난하여 가장 높은 데 살아가지만 정결하고 담아한 솜씨가 빛나는 집이다. 하루 일을 마치고 노을이 물든 마당에 모여 앉아 수확한 감자와 갓 볶아내린 향긋한 커피를 마신다. "아이가 자라서 라다크 농부가 되면 좋겠어요. 밭을 갈고 오르며 농사짓는 건 몸이 좀 힘들 뿐이지만 남을 밟고 오르는 괴로움을 겪고 살아갈 수는 없지요. 늘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길'(박노해/느린걸음) 中–
/동제윤기자 henu3@

영화계 거장들이 꼽는 거장의 셀프 다큐

화제의 책

구로사와 아키라 자서전 비슷한 것

구로사와 아키라/모비딕

"나를 비롯한 많은 영화인들이 그가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영화인이라고 믿는다."

세계적인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는 바로 일본의 거장 구로사와 아키라(1910~98년) 감독이다.

오우삼 감독은 "그가 만든 '7인의 사무라이'나 '요짐보'와 디이내믹한 템포는 내 영화의 위대한 교과서"라고 말했다. 우디 앨런은 "셰익스피어를 꼽을 수 있는 감독은 구로사와밖에 없다"고 찬사했다.

이 책은 구로사와 아키라가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라쇼몽'으로 세계적인 감독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쓴 자서전이다.

구로사와는 영화를 처음 접하게 해준 멘토이자 형인 헤이고의 자살과 평생 스승으로 모신 야마모토 가지로 감독 등 인생의 변곡점에 있던 사람들과 그들로부터 배운 인생사의 깨달음을 담백하게 전한다.

1943년 '스가타 산시로'로 데뷔한 감독은 1950~70년대 유럽과 할리우드 영화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며 세계의 구로사와로 불렸다. 그의 영화는 시공을 초월한 주제와 탄탄한 스토리, 장엄한 미장센 등을 겸비한 독보적인 스타일을 지니고 있다.

'천사처럼 담대하게, 악마처럼 진요하게'는 저자가 영화를 만들 때 항상 마음에 담고 있던 문구인데, 여기엔 영화의 주제는 천사처럼 대담하게 구성하되 작품의 세부 묘사는 악마처럼 집요하게 작업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자서전은 그의 영화 인생에서 이 모토가 어떻게 자라고 구현됐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박지원기자

새로 나온 책

경영 경제

승부의 신 마이클 카슨/알에이치코리아

세계 최고의 축구감독들의 리더십의 비밀을 들려준다. 리더십 전문가이자 맨체스터 시티 FC의 공헌자 마이크 카슨은 프리미어리그 감독협회(LMA)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아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명장들의 지극히 사적인 부분에까지 접근, 그들의 리더십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꼼꼼히 분석했다.

에세이

댄디 오늘을 살다 김홍기/아트북스

19세기에 등장한 댄디(dandy)라는 단어는 '멋진 옷차림, 세련된 스타일' 등을 뜻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회적 질서와 이에 상응하는 스타일에 대한 독특한 형태의 저항'이라는 뜻도 내포한다. 패션 큐레이터 김홍기가 국내 젊은 작가들의 미술 작품을 매개로 댄디의 가치를 전달한다.

계녀에 준 선물 사라 스마일리/책읽는수요일

미국 북동부 메인주에 사는 저자는 세 아들의 엄마이자 해군 소령의 부인이다. 어느 날 남편이 아프리카로 1년간 파병을 떠나게 된다. 한창 커나가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아빠의 존재가 더없이 필요한 때. 저자는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52주간 매주 새로운 손님을 초대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소설

꽃들은 어디로 갔나 서영은/해냄

제7회 이상문학상 수상작 '먼 그대'의 저자 서영은의 열 번째 장편소설로 남녀의 사랑을 넘어선 깨달음의 경지를 어른 작품이다. 결혼이라는 숲 파헤는 현실 속에서 자신이 판돌아낸 인과의 운명을 온전히 품어내며 운명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지러낸 한 여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서양문화사

사랑방에서 듣는 서양문화

구학서/청아출판사

서양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적인 시각에서 특정 연도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분석했다. 또 베토벤, 비틀스, 휴대전화 등 익숙한 서양의 문화 17개를 키워드로 이들 문예 서양의 문화가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든 배경을 짚어냈다. 17개의 일러스트와 풍부한 도판을 수록해 쉽고 재밌게 접근할 수 있다.

자기계발

언니도 그때는 모든 게 두려웠어

윤정은/한얼북스

어떤 관계로 만나든 여자의 삶에서 남자를 만나는 일은 그 어떤 만남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여자들은 너무 신중하고 머리 아프고 어렵고 힘들게 남자를 만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여자 자신은 여기서 빠져있다. 이에 저자는 여자의 진정성 있는 만남과 행복에 대한 얘기를 풀어내고 있다.

화내지 않는 43가지 습관

하스노 슈묘/담앤북스

화를 참으면 스트레스가 되고 화를 내면 그 화가 다시 돌아온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흘려버리는 것'으로 저자는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화를 내지 않는 습관과 이를 위한 '몸가짐' '마음가짐' '생활습관'에 관한 43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

왜 정치는 우리를 배신하는가

남재희/창비

아직까지 우리의 정치제도는 민의를 왜곡하거나 누락하는 일들을 종종 벌인다. 저자는 우리나라 정치제도의 한계를 심도 있게 논의하며 모두가 원하는 정치의 참앙금을 보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신념을 이제라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사

만리 중국사 존저위 이후귀통/가람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중국은 역사를 중시하고 역사를 통해 미래를 계획하는 나라다. 중국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그들의 역사, 문화, 가치을 알아야 하는데 책은 총 21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중국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내달 개봉 '관능의 법칙' 엄정화

발칙한 40대의 사랑 유쾌한 공감 갈걸요

2003년 '싱글즈'에서 "나 제속 연애하고 살거야"라고 외쳤던 엄정화(44)가 이번에는 40대의 성과 사랑을 다룬 영화 '관능의 법칙'(13일 개봉)으로 관객 앞에 선다. 그가 맡은 역은 케이블 방송국의 예능 PD로 매사에 당당한 골드미스다.

#시나리오 술술 읽혀

그는 "시나리오가 술술 읽혔다. 읽으면서 참 많이 웃었다. 배역을 선택할 때 (내가)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 있을까 등 고민하는 편인데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 무엇보다 내 또래가 고민하는 것을 솔직하게 다룬 점이 좋았다"고 출연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사람이 나이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공자는 마흔 살을 이런저런 일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인 '불혹'이라고 정의했다. 1992년 영화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로 데뷔해 올해 23년째 연기 생활을 맞는 엄정화가 생각하는 마흔은 어떤 모습일까.

"40대가 추구해야 하는 아름다움은 멋스러움이라고 생각해요. 최근 70세를 넘긴 한 예술가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끊임없이 다음 작품을 생각하고 재미를 추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아기 같던 눈이 기억에 남아요. 나 역시 얼굴에 책임지기 위해 화가 날 때 '얼굴 찡그리지 말자'는 자기 주문을 걸죠."

여배우로서 나이 들어 주는 선물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울할 때나 스스로를 다독여야 할 때 현명하게 극복하는 노하우가 생겼다. 지금은 괴로워도 이것 또한 지나가게 된다. 앞일이 기대된다"고 스스로를 추스르며 넓게 보는 시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 내 또래 고민 솔직하게 다뤄 예능 PD 골드미스로 열연 사랑받는 비결? 일 즐김뿐
> :
> 올해 목표는 신나게 살기 화날땐 '마법의 주문' 걸죠
> ”

#데뷔 23년차… "연예인 현직"

그간 40여 편이 넘는 작품 활동을 했다. 영화 '해운대'(2009년)로 1000만 배우로 이름을 올렸고 '결혼은 미친 짓이다'와 '댄싱퀸'으로 두 차례 백상연예대상 영화 부문 최우수연기상, 몽타주로 지난해 제50회 대종상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한 분야에서 20년 넘게 대중의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일을 즐기는 것이었다.

"아주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어요. 노래부르는 것이 좋아 열아홉 살에 서울에 올라와 스무 살에 MBC 합창단 오디션을 보고 운 좋게 여기까지 왔죠. 도중에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 일 말고 다른 일을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인지 고생을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힘든 역을 맡아도 즐거웠답니다."

최근 4인조 여자 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가인이 립모션 엄정화를 지목했다. 엄정화 특유의 밝은 기운과 연기에 대한 열정, 그리고 성실함 때문이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올해 신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운동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여행도 가고…"라며 해맑은 웃음을 띠는 엄정화의 모습에서 차곡차곡 쌓아온 삶이 얼마나 치열했을지가 짐작이 갔다.

2월 11일 첫방송 / 매주 화 밤 11시 tvN 방송

아시아 팬미팅 나서는 김우빈

16일 홍콩 필두 대만·중국·태국 등 방문

'대세남' 김우빈(사진)이 아시아 팬들과 뜨거운 만남을 가진다.

오는 16일 홍콩을 시작으로 배우 김우빈이 대만 타이베이, 중국 상하이, 태국 방콕 등에서 '김우빈 첫 번째 팬미팅 인 아시아'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아시아 전역에서 뜨거운 러브콜을 받고 있다.

김우빈은 지난해 드라마 '학교 2013' '상속자들'에 이어 영화 '친구2'까지 연속 흥행에 성공시키며 아시아 전역에 떠오르는 한류스타로 등극했다.

김우빈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것은 어미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인기 드라마 '상속자'는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과 유럽과 아메리카까지 판권 계약을 끝낸 상태이기 때문이다.

김우빈은 지난달 투어의 시작인 서울 팬미팅에서 3000여 명의 팬들과 공식 팬클럽 '우리빈'의 창단식을 갖고 풍성한 매력을 뽐내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우빈의 소속사 싸이더스HQ 측은 "'상속자들'과 '친구2'를 연속 흥행시키며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아시아 팬미팅을 진행하게 됐다"며 "국내에 이어 해외에서도 많은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고 해외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김우빈은 이현우와 함께 영화 '기술자들'에 합류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장성은기자 yuse@

지상파 드라마·예능 줄줄이 결방

소치올림픽 중계 때문 '무한도전' 등 방영 안해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의 열기가 드라마와 예능까지 휩쓸고 있다.

최근 지상파 3사는 월화극과 심야 예능 프로그램을 결방하고 올림픽 경기 중계에 집중하고 있다. 메달 소식을 기다리는 스포츠 팬들을 위해 인기 예능 프로그램은 물론 신규 드라마 방영 일정까지 미루고 있다.

MBC는 11일 오후 9시40분부터 방상 여제 이상화가 출전한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경기 중계를 위해 지난 10일 지상파 3사 월화극 중 유일하게 방송됐던 MBC '기황후'의 결방을 선택했다. 또 12일 '황금어장 라디오스타'와 15일 '무한도전'(사진) '세상을 바꾸는 퀴즈' '음악여행 예스터데이'가 결방된다.

KBS는 소치 중계로 당초 10일 첫 방송을 예정했던 새 월화극 '태양은 가득히'를 오는 17일로 미뤘으며 11일 '우리동네 예체능'도 결방됐다.

SBS는 스피드스케이팅 경기를 중계하진 않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결방하고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하며 올림픽 분위기를 이어갔다. 그러나 12일에는 SBS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다.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수목극 '별에서 온 그대'는 25분 앞당겨진 오후 9시 35분에 방송된다. /장성은기자

'미스터리 걸' 소녀시대

'미스터미스터'로 24일 컴백

소녀시대가 1년여 만에 컴백을 예고하고 공개한 티저 영상 캡처 사진

걸그룹 소녀시대(사진 위)가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과 동시에 가요계에 컴백한다.

소녀시대는 24일 네 번째 미니앨범 '미스터미스터'를 출시한다. 정규 4집 '아이 갓 어 보이' 이후 1년여 만에 발표하는 새 음반이다. 음반 출시 전인 19일에는 멜론, 지니, 네이버 뮤직 등 각종 음악 사이트에 타이틀곡 '미스터미스터'의 음원을 선공개한다.

소녀시대의 컴백은 지난해 말부터 가요계의 최대 관심사였다. 이들의 음악과 무대 콘셉트와 스타일 등에 무수한 추측이 쏟아졌고, 컴백 시기를 예측하며 다른 가수들이 컴백 일정을 조절하는 눈치 작전도 치열하게 벌어졌다.

소녀시대는 11일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SM타운 채널, 페이스북 SM타운 페이지 등에 이번 앨범의 티저를 공개했다. 티저 영상에는 새롭게 변신한 소녀시대 멤버들의 모습이 미스터리한 분위기 속에서 감각적으로 담겼다.

소녀시대는 지난해 발표한 '아이 갓 어 보이'로 미국 유튜브 뮤직 어워드에서 레이디 가가, 저스틴 비버, 원 디렉션 등 세계적인 팝스타를 제치고 메인 상인 '올해의 뮤직비디오'를 수상했다. 또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2013 올해의 노래 톱 10'에 아시아 가수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외에 미국 음악 전문 케이블 퓨즈 TV가 선정한 '2013년 가장 기대되는 앨범 44'에도 이름을 올리는 등 미국 유력 매체 및 시상식에서 '앨범-노래-뮤직비디오' 모두 주목받는 글로벌 성과를 얻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2NE1 콘서트만큼 화끈한 뒤풀이

내달 두번째 월드투어 후 걸그룹 최초 '19금' 애프터 파티 개최

2NE1(사진)이 걸그룹 최초로 콘서트 후 '19금' 애프터 파티를 개최한다.

다음달 1~2일 올림픽공원 SK핸드볼 경기장에서 두 번째 월드투어 'AON(ALL OR NOTHING)'을 개최하는 2NE1은 콘서트가 끝난 뒤 팬들의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화끈한 뒤풀이를 기획했다. 1일과 2일 콘서트 직후인 오후 10시 역삼동에 위치한 클럽 더 A에서 개최되는 파티에는 2NE1이 참석해 팬들과 함께 공연의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걸그룹에게는 쉽지 않은 도전인 2NE1의 두 번째 월드투어에는 세계적인 연출가 트래비스 페인과 스테이시 워커는 물론 빅뱅의 월드투어를 함께한 라이브 밴드도 합류해 수준 높은 연출력과 풍부한 사운드를 선사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공개된 SF영화를 방불케 하는 콘서트 티저 영상은 이번 월드투어를 통해 2NE1이 어떤 무대로 팬들을 사로잡을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번 투어는 한국·일본·중국 등 9개국 13개 도시에서 17회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해 싸이의 솔로 활동을 시작으로 '폴링 인 러브' '두 유 러브 미' '그리워해요' 등을 발표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친 2NE1은 현재 새 앨범과 월드투어 준비에 한창이다. /유순호기자

'렛 잇 고' 부른 손승연 유튜브 스타로 등극

신예 가창력 '끝판왕'으로 불리는 손승연(사진)이 영화 '겨울왕국'의 OST '렛 잇 고'를 열창한 영상을 올려 유튜브 스타로 등극했다.

이 영상은 지난 4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후 일주일 만에 유튜브 클릭 수 200만 뷰를 기록했으며 4만여 개의 '좋아요'와 5000여 개의 댓글이 달리는 인기를 얻고 있다. 또 페이스북 인기 페이지인 '세상에서 가장 웃긴 동영상'에서 500만 이상의 조회 수를 달성하는 동시에 12만5000건의 '좋아요'를 기록했다.

손승연의 '렛 잇 고'를 접한 해외 팬들은 유튜브 댓글은 물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손승연의 영상을 리트윗하면서 "할 말을 잃었다. 정말 감동적이다" "셀린 디옹을 능가하는 가창력이다" "목소리가 정말 좋다. 눈물이 날 정도다" "원곡보다 훌륭하다" "한국 가수라고 들었다. 응원하겠다" 등 호평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렛 잇 고'로 탁월한 보컬 능력을 보여준 손승연은 다음달 신곡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대성 4년만에 솔로앨범 발표

빅뱅 대성(사진)이 한·일 양국에서 보컬리스트로 역량을 과시한다.

2010년 솔로곡 '솜사탕'을 발표했던 그는 올봄 4년여 만에 새 앨범을 [illegible]시한다. 이와 함께 일본에서도 솔로 음반을 내고 아레나투어를 개최한다.

4월 11일 요코하마 아레나를 시작으로 고베 월드 기념 홀, 마린멧세 후쿠오카, 게비오 아레나 센다이, 홋카이도 도립 종합체육센터 홋카이키타에루를 거쳐 7월 17일 부도칸에서 투어를 마무리한다. 총 7개 도시에서 12회 공연한다. 대성은 이번 아레나투어에서 12만5000명의 관객을 동원할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metro sochi

연아·석희 부담 던 여제 맏언니

이상화, 동계올림픽 역대 세번째 500m 2연패 위업 · 막혔던 한국 금맥도 '뻥'

sochi.ru 2014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여제 3총사'의 선두주자 이상화(25·서울시청)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대회 초반 메달을 기대하던 남자 선수들이 줄줄이 빈손으로 경기를 마친 가운데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세계랭킹 1위 이상화가 마침내 한국의 금맥에 첫선을 텄다. 이상화는 11일(현지시간) 러시아 소치의 아들레르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1차 레이스에서 37초42로 1위에 이름을 올린데 이어 2차 레이스에서도 37초28을 기록해 종합 74초70으로 올림픽 2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500m에서 연속 금메달을 딴 선수는 미국의 보니 블레어(1988·1992년), 캐나다의 카트리오나 르메이돈(1998·2002년)뿐이었고, 이상화는 이번 올림픽에서 타이틀을 방어하면서 한국의 스포츠 역사는 물론 올림픽 기록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이상화의 적은 '이상화'라는 말이 경쟁자들에게조차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그는 압도적인 기량을 뽐내왔다. 4년 전 세계기록 보유자 예니 볼프(독일·76초14)를 0.05초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오른 '깜짝 스타' 이상화는 올림픽 이후 무섭게 성장하며 이 종목 절대 강자로 우뚝 섰다.

2012·2013년 종목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연이어 여자 500m를 제패했고 2012~2013시즌 월드컵에서는 8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올림픽을 앞둔 2013~2014시즌에는 그야말로 거침없는 계속 질주로 세계 빙상계를 놀라게 했다.

이전 시즌 월드컵 6차 대회에서 이미 한 차례 세계 기록을 경신(36초80)했던 이상화는 지난해 11월 월드컵 1차 대회 2차 레이스에서 36초74, 월드컵 2차 대회 1차 레이스에서 36초57, 2차 레이스에서 36초36으로 잇달아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번 없는 챔피언의 진가를 보여준 이상화의 활약으로 침체된 한국 선수단도 활력을 되찾았다. 목표로 내건 금메달 4개의 실질적 후보인 이상화가 제몫을 해냄으로써 후발 주자들도 한결 부담을 덜게 됐다.

이상화의 금메달은 한국의 확실한 금메달 후보인 '피겨 여왕' 김연아(24)와 '쇼트트랙 자세나 여왕' 심석희(17·세화여고)의 스케이트 날을 한층 가볍게 해줄 전망이다.

/유순호기자 sunc@metroseoul.co.kr

꽃을 든 '빙속 새 전설' 이상화
이상화가 11일 오후(현지시간) 소치올림픽 여자 5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뒤 플라워 세리머니 때 단상 위에서 꽃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스키엔 '단풍잎 자매' 빙속엔 '오렌지 형제' 쌍둥이선수 무한질주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빛을 나는 형제 자매의 선전이 시선을 끌고 있다.

9일 프리스타일스키 여자 모굴에서 쥐스틴 뒤푸르라푸앙(20)·클로에 뒤푸르라푸앙(23) 캐나다 자매가 금메달과 은메달을 휩쓸더니 11일 네덜란드의 쌍둥이 형제가 스피드스케이팅 시상식 단상을 오렌지색으로 물들였다.

미힐 뮐더르(28·**사진 왼쪽**)는 이날 끝난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에서 1·2차 레이스 합계 69초312를 찍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의 쌍둥이 형인 로날트 뮐더르(28·**오른쪽**)는 69초46을 기록하고 동메달을 따냈다.

캐나다 자매의 마찬가지로 동생이 언니 또는 형을 제치고 우승했다.

쌍둥이 형제가 동계올림픽 한 종목에서 나란히 메달을 수확하기는 1984년 사라예보 대회 알파인스키 남자 활강에서 금·은메달을 각각 가져간 필·스티브 메르 형제(미국) 이래 30년 만이다. /유순호기자

스노보드 이광기 11위 그쳐

스노보드 이광기(21)가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아쉽게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이광기는 11일 러시아 소치 로사 쿠토르 익스트림파크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남자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서 최종점수 69.5점을 얻으며 선전했지만 20명 중 11위에 그쳐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는 40명 중 각 조 1~3위에게 결승, 4~9위에게 준결승 진출권을 준다.

이광기는 1차 시기에서 27.00점을 얻어 16위에 그쳤고, 2차 시기에서 69.50점으로 11위를 기록했다. 9위인 프랑스의 요렌 베사미(71.25점)에 불과 1.72점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유순호기자

국가별 메달 순위 (12일 오전 2시 현재)

순위	국가	금	은	동
1	노르웨이	4	3	4
2	캐나다	4	3	2
3	네덜란드	3	2	3
4	미국	2	1	3
5	독일	2	0	0
7				
9	대한민국	1	0	0

11일 아이스큐브 컬링센터에서 열린 여자 컬링 예선 일본과의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 김지선(오른쪽)이 스톤의 방향을 살피며 팀 동료들에게 작전을 지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빙판 위 우생순' 반란 시작됐다

여자컬링, 日 잡고 첫승

사상 첫 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이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산뜻하게 출발했다.

세계 랭킹 10위인 한국 여자 대표팀은 11일 러시아 소치 아이스큐브 컬링센터에서 열린 일본(세계 랭킹 9위)과의 예선 1차전에서 12-7로 승리했다. 한국 대표팀은 주장 김지선(27)을 중심으로 신미성(36), 이슬비(26), 김은지(25), 엄민지(23) 등 경기도청 선수들로 구성됐다.

한국은 1엔드에서 일본에게 선취점을 내주고도 곧바로 2엔드에서 동점을 만회하며 박빙의 승부를 이어갔다.

4엔드에서 마지막 스톤을 굴려 테이크아웃(상대 스톤을 밀어내는 행위)을 성공하고 2점을 얻은 한국은 4-3으로 역전했다.

그러나 한국은 5엔드에서 일본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더블 가드를 세우는 작전을 펼치고도 2점을 내주며 4-5로 재역전을 당했다.

이후에도 치열한 접전은 펼치던 한국과 일본의 승부는 8엔드부터 갈리기 시작했다.

8엔드를 맞이한 한국은 마지막 스톤을 굴려 일본의 스톤을 밀어내고 하우스 안에 2개의 스톤을 안착시켜 9-7로 달아났다.

일본은 9엔드에서 후공으로 경기를 치렀음에도 오히려 한국이 1점을 추가하며 10-7로 앞서면서 점수 차를 벌렸다. 한국은 경기의 마지막이 된 10엔드에서도 리드를 지켜 사상 첫 올림픽 경기에서 12-7 승리를 거뒀다. /정세호기자 ysw@

평창올림픽 희망쏜 모굴 스키 최재우

프리스타일스키 남자 모굴 '신성' 최재우(20·한국체대·**사진**)가 한국 스키의 새 역사를 썼다. 메달 획득에 실패했지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키 희망을 밝혔다.

최재우는 11일 러시아 소치 로사 쿠토르 익스트림파크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남자 모굴 2차 예선에서 21.90점을 획득, 2위에 올라 총 20명이 겨루는 결선 1라운드에 진출했다. 한국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가 올림픽 결선 무대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결선에 직행할 10명을 먼저 가리는 1차 예선에서 15위에 이름을 올린 그는 2차 예선을 무난히 통과하며 기다렸던 결선 무대에 나섰다. 이어진 결선 1라운드에서는 10위에 올랐다.

10위는 한국 스키 선수가 동계올림픽 개인전에서 기록한 최고 순위다. 최재우는 결선 2라운드에서 첫 번째 공중묘기 다음 룹 연기를 마치고 회전동작으로 들어가던 도중 게이트를 벗어나 실격처리됐다.

하지만 그가 이날 보여준 가능성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향한 희망가였다. 최재우가 보여준 공중동작 등은 세계 수준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유순호기자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에서 경기 감각을 점검한 모태범이 12일 밤 남자 1000m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노린다

모태범 "진짜 승부 1000m"

오늘밤 11시 출전 초반 600m에 메달색 달려

모태범(25·대한항공)이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해 다시 날을 세운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에서 올림픽 2연패의 꿈은 접었지만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12일 오후 11시 러시아 소치의 아들레르 아레나에서 열리는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000m 경기에 출전해 금메달을 노린다.

4년 전 밴쿠버올림픽에서는 500m에서 금메달을 따고 100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1000m에 더욱 주력해 훈련해왔다.

모태범은 출국 전 인터뷰에서도 "500m보다 1000m에 대한 욕심이 있다. 많이 실패도 해봤지만 1000m에 한상 욕심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소치 입성 직전 네덜란드 헤렌벤 전지훈련에서도 1000m 올림픽 3연패를 노리는 절대 강자 샤니 데이비스(미국)를 넘을 수 있는 비책을 찾는 데 중점을 뒀다.

모태범이 갖고 있는 1000m 최고 기록은 1분7초26이다. 데이비스는 1분6초42의 세계기록을 갖고 있다. 모태범은 2~3바퀴를 확실히 돌 수 있는 체력을 바탕으로 단거리의 장점을 최대한 접목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초반 200m를 빠르게 통과한 뒤 600m 구간까지 최대한 격차를 벌려놓고 데이비스가 막판 스퍼트를 낸 마지막 400m를 버티는 전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반 200m에서 0.5초, 600m 지점에서 0.7초가량 데이비스보다 앞서야 한다.

모태범은 이 작전으로 지난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4차 대회 1000m에서 1~3차 대회를 석권한 데이비스를 잡은 바 있다. 1분9초50을 기록한 모태범은 0.09초 차로 데이비스를 제치고 우승했다.

그러나 이 종목에서도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될 복병이 네덜란드에 겨져 기세다. 500m 금메달을 딴 미헐 뮐더르는 월드컵 4차 대회에서 데이비스를 누르고 모태범에 이은 2위(1분9초52)에 올랐다. 2012년 ISU 스피드스케이팅 세계종목별선수권대회 남자부 1000m 은메달을 딴 키얼트 누이스도 경계 대상이다.

/유순호기자 sun@metroseoul.co.kr

욕실 이어 승강기 갇혀… 美 선수 수난사

소치 이모저모

봅슬레이 조니 퀸 구조 돼

○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참가 중 고장 난 숙소 욕실 문을 부수고 나왔던 선수가 이번엔 승강기에 갇혔다.

미국의 봅슬레이 선수 조니 퀸(31)은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 승강기에 갇혔다"면서 승강기 문을 억지로 열려는 듯한 자세의 사진을 올렸다. 비슷한 시간 퀸의 동료 닉 커닝햄(29)과 데이비드 크립스 기술감독 역시 각각 자신의 트위터에 "승강기 문이 고장 나 갇혔지만 퀸과 함께 있어 다행이다"는 글을 올렸다.

퀸 일행은 트위터에 사진과 글을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풍자 사륜기 티셔츠 등장

○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식 '사륜기 사고'를 기념(?)하는 티셔츠가 등장했다.

미국 특별주문 제품 온라인 쇼핑몰에 펴지지 않은 소치올림픽 오륜기를 패러디한 디자인의 티셔츠가 22.95달러(약 2만원)에 판매되고 있어 다시 화제에 올랐다.

또 중국에서도 온라인 판매상들이 '사륜기 티셔츠'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오륜기의 다섯 고리 중 한 개가 불이 안 들어온 기술 사고 이후 판매상들은 오륜기의 사륜 버전을 내세운 티셔츠와 스웨터 및 상의를 제작해 판매를 시작했다.

'여친 구함' 번호 공개에 폰 고장

○ 여자친구를 찾겠다고 전화번호가 적힌 헬멧을 쓰고 경기에 나긴 러시아 스노보드 선수의 휴대전화가 '문자메시지 폭탄'으로 결국 고장났다.

알렉세이 소볼레프는 6일(현지시간) 러시아 소치의 로사 쿠토르 익스트림 파크에서 열린 남자 스노보드 예선에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헬멧을 쓰고 경기에 나갔다. 결승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선전을 기원하는 문자부터 수십 장의 누드 사진까지 수천 통의 문자를 받아 전화번호를 새긴 효과는 톡톡히 봤다. 그러다 과부하가 걸린 휴대전화는 7일에 결국 작동을 멈췄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오륜기 사고를 패러디한 사륜기 티셔츠, 고장 난 승강기에 갇힌 미국 봅슬레이 선수 조니 퀸, 러시아 스노보드 선수 알렉세이 소볼레프의 전화번호가 새겨진 헬멧

기온 17도…동계올림픽 맞아?

○ 러시아 소치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 선수들이 동계올림픽답지 않은 아열대성 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11일 기온은 17도까지 치솟았다. 스키 선수들은 작열하는 태양에 달아오른 스키복 온도를 낮추기 위해 옷 안에 눈을 집어넣기도 했고, 스노보드 선수들은 착지점의 눈이 녹아 물웅덩이로 변한 탓에 공중에서 내려와 지면에 닿을 때 애를 먹었다. 스키점프가 열리는 러스스키 고르키 점핑센터도 착지점의 눈이 녹자 경기를 중단했다.

주말에 기온이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 경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의문도 들지만 조직위는 "이미 많은 인공 눈을 준비했다"며 눈 상포에 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박진형기자·외신종합 jinhyung@

소치 하이라이트 (12일 주요 경기·한국시간)

종목	세부 종목	경기 시작	한국 선수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000m	23시	모태범 김태윤 이규혁
컬링	여자 예선	14시(스웨덴전)	신미성 김지선 이슬비 김은지 엄민지
루지	남자 2인승	23시 15분	조정명 박진용

日 거대 언론 오승환 흔들기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타자의 나이밍을 뺏는 데 오승환(한신타이거즈·사진)의 투구 폼은 효과적이다. 왼발을 디디려는 순간 20~30cm 정도 더 나와 볼을 뿌린다. 타자는 언제 방망이를 휘두를지 잘 모른다. 여기에 돌직구까지 던지니 난공불락이다.

오승환은 지난 7일과 9일 전지훈련지인 오키나와 기노자구장의 투구훈련장에서 불펜 투구를 했다. 포수를 앉혀놓고 50~60개의 볼을 뿌렸다. 100명이 넘는 일본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다른 구단 분석원과 평론가들도 직관했다.

평가는 극찬 일색이었다. 묵직한 돌직구와 날카로운 변화구에 안정된 제구력까지 갖춰 사실상 약점이 없다는 평가들이 주를 이뤘다. 또 하나는 특이한 투구 폼도 위력을 더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데 일본프로야구(NPB) 심판위원회는 9일 한신 수뇌진을 찾아가 오승환의 투구 폼의 규칙 위반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통보했다. 일본에서 볼 수 없는 투구 폼이니 논의해보겠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일 수 있다. 이미 올림픽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등 국제대회에서 문제가 없어 일본에서도 인정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0일 스포츠호치는 오승환의 투구 폼이 이중 동작에 저촉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자극적인 단어를 동원했다. 심의 결과에 따라 규칙위반으로 인정받아 투구 폼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지난 8일 오승환이 번트와 정불 처리 등 투타 연계 플레이 도중 포수의 일본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허둥댔다면서 비꼬기도 했다.

한눈에 봐도 다른 신문에 비해 훨씬 자극적인 내용이었다. 이 신문은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계열사다. 자이언츠 관련 기사를 1~3면에 배치하는 기관지나 다름없다. 자이언츠와 한신은 '전통의 일전'으로 불리는 라이벌이다. 숙적의 새로운 소방수에 대한 흔들기란 가능성이 농후하다. /OSEN 야구전문기자

프로농구 전적 11일

SK	11	23	15	17	9	9	10	94
코리온스	25	14	14	13	9	9	3	87

프로배구 전적 11일

흥국생명	3	0	현대건설
대한항공	3	1	한국전력